카카오의 상생 5년 이야기

2022년 시작한 상생의 약속이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함께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5년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같이의 가치

스타트업

2025 CLIMATE TECH STARTUP SUMMIT

START

새가버치

with us

Give Love
Give Heart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지역 사회

감자 스튜디오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소상공인

미래 기술 인재

kakaoT

2025
카카오 점자달력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카카오의 상생 5년 이야기

같이 걸어요

목차

인사말

6 함께 만든 변화,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상상의 시작, 약속의 여정

8 같이도생 타임라인
10 상생 약속 이행 결과
11 같이 만든 임팩트

생생한 변화, 현장의 목소리

14 **소상공인**
지속, 내 일을 오래 이어갈 힘

우리 골목에 새로운 단골을 모십니다! 프로젝트 단골
작은 브랜드가 큰 사랑을 받을 때까지 오래오래 함께가게
랜선 너머, 진짜 구매자를 찾아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가게를 돌볼 시간까지 생각하는 금융 개인사업자 서비스
자녀 걱정 덜고, 가게에 마음 쏟도록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녀 성장 지원
다음 농사를 이어갈 힘 제가버치

32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안심,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있다는 믿음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선행을 향해,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로 위 히어로즈
미래의 이동, 우리가 책임져요! AI 주니어랩
도로 위 사람들 곁에서, 상생의 다음 길을 엽니다 모빌리티 종사자를 위한 상생

46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자기다움, 내 이야기를 나답게 펼칠 기회

홀로 품은 이야기가 세상에 닿도록 예비창작자 교육 파이프라인
임대료 고민할 시간에, 더 좋은 작품을 고민해요 창작공간 지원
음악은 나답게, 무대는 함께 인디 아티스트 지원
어느 날, 제 글쓰기가 책이 되었습니다 브런치 공모전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의 기반 창작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62 **스타트업**
가능성,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도전

금융의 사각지대, 기술로 채웁니다 핀넥트(FIN:NECT)
작은 팀의 큰 도전, AI 인프라로 더 멀리 로켓런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돕는 기술, 돕는 AI 테크포임팩트
지역에서 펼친 AI, 세계로! 카카오 AI 돛

76 **AI 시대를 사는 사람들**
자신감, 디지털 세상을 스스로 누릴 의지

AI 시대, 새로운 시민성을 고민합니다 미래 세대 AI 시민성 교육
디지털 금융을 만나는 경험이 키워준 꿈 청소년 금융 교육 지원
알고자 하는 진심이 열어준 세상 시니어 디지털 교육
연극 속 도박, 내 이야기가 되기 전에 제로라운드
좋은 세상을 앞당기는 활동가의 AI 배움 카카오테크 NGO AI 클래스

92 **미래 기술 인재**
성장, 배움을 내일의 역량으로 이어가는 경험

9시간의 몰입, 발견해 낸 가능성 랄프톤
비수도권 기술교육 격차, 루키 캠프로 격파! AI 루키 캠프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코드 모두의 AI 코딩 LAB
찾습니다! AI 시대의 문제 해결자 AI_TOP_100
지역에서 '좋은' 개발자 난다! 카카오테크 캠퍼스

108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실천, 지구의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선택

음악을 들으면 자라나는 숲 숲;트리밍
작은 생명을 향한 관심이 함께 지켜갈 의지로 에코실험실·에코임팩트
새활용이라는 멋진 말 새가버치
기후위기라는 질문에 기술로 답합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122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공존,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갈 자리

노트북 속 로봇이 '진짜' 현장의 로봇으로 안산 지역협력
제주 지역 문제, 같이 풀어보게마씸! 제주 임팩트 챌린지
'장벽 없는'이라는 말조차 불필요한 일상 모두를 위한 접근성
문화의 즐거움에 서로 다른 방식은 없으니까!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기부는 이렇게 일상이 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진심과 기브셔틀만 있다면 누구든 봉사할 수 있어! 기브셔틀

카카오 상생 인덱스

140 카카오 상생사업 모아보기
142 카카오 수상 내역
143 함께한 파트너·기관
144 계속, 상생하겠습니다!

함께 만든 변화,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카카오는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파트너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카카오가 가진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생의 의미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상생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강점과 가능성을 연결해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일입니다. 작은 기회가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서로 다른 경험과 역량이 만나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웠던 성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와 사회혁신가, 스타트업 및
지역, 비영리단체와의 만남은 기술과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카오의 기술과 서비스, 자원이 파트너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의 발판이 될 때 그 가치도 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들의 도전과 성장은 카카오에도 새로운 배움과 자극이 되었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카카오의 상생 5년 이야기, 같이도생〉은 지난 5년간 카카오와
파트너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의 기록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발판 삼아
도전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서로의 가능성을
넓혀온 경험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상생이
개별적인 지원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카카오의 서비스와 사업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카오는 함께할수록 의미가 깊어지고, 소통할수록 새로운 길이 열리는
상생의 가능성을 앞으로도 넓혀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세상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카카오 대표이사 **정신아**

같이도생 타임라인

2022년 시작한 상생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꾸준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2022

3월

카카오그룹

사회 지속가능성 위한 상생기금 3천억 원 조성 및 이행 선언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창작자 생태계 위한 카카오창작재단 설립

8월

카카오게임즈

초기 게임 개발사 투자 지원하는 같이가자 상생펀드 100억 원 조성

10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창작자 정산 투명화를 위한 파트너 포털 오픈

2023

8월

카카오페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오래오래 함께가게 시작

9월

카카오

소상공인 · 전통시장 대상 단골 만들기 챌린지 시작

2024

2월

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업계와 상생 위한 재단 설립

9월

카카오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 설립

12월

카카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 시작

2025

9월

카카오그룹

국가 균형 성장 위해 5년간 지역 AI 육성기금 조성

12월

카카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3년 연속 선정, 올해 최고 등급 ‘S’ 획득

2026

4월

카카오

문제해결형 AI 인재 양성을 위한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전국 확대

카카오

지역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구 카카오 AI 돛 출범

11월

카카오그룹

카카오 상생 5년 캠페인 ‘같이도생’ 오픈

상생 약속 이행 결과

카카오그룹은 상생 파트너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5년간 3,000억 원의 상생기금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가 뜻을 모아 2026년 3분기까지
총 3,777억 원을 집행해 목표한 기금액을 앞당겨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5년간 이루고자 했던 상생의 약속,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참여 법인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같이 만든 임팩트

~2026년 10월 기준 누적

상생의 약속은 더 넓은 기회와 더 든든한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카카오와 파트너들이 같이 만든 반가운 변화들을 만나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단골과 고객이 생겼어요



프로젝트 단골과 함께한 소상공인

7.8만 명

오래오래 함께가게를 다녀간 방문객

52만 명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

380억 원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기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드렸어요



택시기사 의료생계비 지원을 받은 기사님

1,240명

안심·책임보험 지원을 받은 기사님

58만 명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은 기사님

1.6만 명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힘썼어요



파트너 플랫폼 통한

작가 정산 투명화

예비창작자 육성 교육·세미나 참여자

1.4만 명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 및 차단 대응

11억 건

스타트업

스타트업 육성·지원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해요



로켓런처 스타트업 대상 AI 인프라 지원

22.3억 원

핀테크 육성 및 투자 지원에 참여한 스타트업

640개

지역 AI 생태계를 위한 AI 육성 기금 조성

5년간 500억 원

AI 기술인재

지역의 실무형·문제해결형 AI 인재를 양성했어요



비수도권 청소년 AI 프로젝트 교육 참가자

197명

지방거점국립대 AI 실무 교육 수료생

5개 대학 · 561명

사회 문제 해결 AI 프로젝트 수업 개설 및 수강

18개 대학 · 811명

아동·청소년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 시민 역량 교육을 진행했어요

AI 시민성 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30만 명

디지털 금융 교육 참여 청소년

2만 명

AI 시민성 교육 참여 학교

2,926개교 · 1.4만 개 학급



시니어

디지털을 만나 일상의 편리함과 효능감이 높아졌어요



시니어 디지털 강사 양성

202명

시니어 맞춤 교재와 키트 무상 지원

10만 개

시니어 디지털 스쿨 참여 복지관 및 수료생

462곳 · 1만 명

지역사회

이용자·지역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용자와 카카오가 함께 만든 같이가치 기부액

1,087억 원

카카오 T로 함께 떠난 봉사 시간

4,865시간

78건의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한 제주도민

360명

기후·환경

연결을 통해 지구를 위한 더 큰 변화를 모색했어요



새가버치로 새활용된 폐기물

약 2천만 개

기술을 통해 기후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서밋 개최

참여 기관 420곳

최애 음악을 들을수록 조성되는 아티스트 이름의 숲

약 1.3만 그루 · 25개

지속,
내 일을 오래 이어갈 힘

우리 골목에 새로운 단골을 모십니다! 프로젝트 단골

작은 브랜드가 큰 사랑을 받을 때까지 오래오래 함께가게

랜선 너머, 진짜 구매자를 찾아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가게를 돌볼 시간까지 생각하는 금융 개인사업자 서비스

자녀 걱정 덜고, 가게에 마음 쏟도록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녀 성장 지원

다음 농사를 이어갈 힘 제가버치















우리 골목에 새로운 단골을 모십니다!

가게마다 쌓인 정성과 이야기를 더 많은 손님에게 전하는 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상인과 손님 사이의 거리를 좁힙니다. 한 가게의 단골을 골목의 단골로, 개별 가게의 성장을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갑니다.

프로젝트 단골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고객을 연결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더 많은 단골을 만들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 방문과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 **상권 디지털 지원사업(2022~):** AX·DX 교육, 채널 활성화 지원금, '단골데이' 행사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단골 확보 지원
- **단골가게(2026 신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로컬 브랜드와 전국 단골의 만남을 지원
- **곳곳(2026 신규):** 매거진을 통해 숨은 가게 발굴, '곳곳 산책' 행사로 가게와 고객 연결

IMPACT

함께한 소상공인
2026년 9월 기준

7.8만 명

누적 지원금
2026년 9월 기준

380억 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상권

325개

함께 만든 변화를 들고, 파리에 간 계동길

김용조 |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북촌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아이를 키우고 이웃과 함께한 이곳이 제게는 마음의 고향이죠. 부동산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골목 구석구석의 사정도 잘 알게 됐어요. 계동길 상인 중 절반 정도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가게와 집이 함께 있는 골목이라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자랑입니다. 상인회장이 되고 나서는 작은 가게들이 혼자 내기 어려운 목소리를 함께 내고 싶었어요.

그중 하나가 홍보였어요. 한두 가게를 알리는 데서 나아가 계동길 전체를 소개하고 싶었죠. 그때 '프로젝트 단골'을 추천받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낯설고 장사하기도 바쁜 상인들을 설득했어요. 카카오의 기술과 전문성에 우리가 아는 골목의 매력을 더해보자고요. 결국 상인들과 사장님들의 자녀까지 나와 풍선을 불고, 손님들에게 카카오톡 채널을 안내했어요. 그렇게 톡 채널에 약 4,800명의 온라인 단골이 생겼죠. 한 번 다녀간 손님에게도 꾸준히 골목의 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러 파리의 OECD 회의에도 다녀왔어요. 상인들과 카카오가 함께한 일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는 자리였죠. 매일 오가던 작은 골목의 이야기가 그렇게 멀리까지 전해진다는 게 참 벅찼어요. 상인회 일을 하다 지칠 때면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한 가게에 온 손님이 옆 가게도 둘러보고, 다음에는 계동길이 좋아서 다시 찾아오면 좋겠어요. 오래된 가게와 새로 문을 연 가게, 주민과 손님이 함께 어울리는 골목이면 좋겠고요. 한 가게에 찾아온 반가움이 골목 전체로 퍼지는 것, 제가 바라는 같이도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골목에 그 따뜻한 연결이 오래 남았으면 합니다.

작은 브랜드가 큰 사랑을 받을 때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챙겨야 하는 작은 브랜드 사장님들의 하루에는 브랜드의 진심을 이해하는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배움의 기회는 물론 브랜드의 매력을 함께 알리며 사장님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약합니다.

오래오래 함께가게

카카오페이와 함께일하는재단이 2023년부터 이어온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 브랜드에 온·오프라인 판로, 사업 역량 강화 교육, 브랜드 홍보를 지원합니다. 판매와 운영의 부담을 덜고 실무 역량을 키워 작은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전용 온라인몰·팝업스토어 입점과 전문 MD·판매 인력 지원, 입점비·판매 수수료 부담 완화
- **사업 역량 강화 교육:** 금융·세무·회계부터 브랜딩·마케팅까지 실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브랜드별 운영 역량 강화
- **브랜드 홍보 지원:** 인터뷰·제품 큐레이션·캠페인 영상 등 콘텐츠 제작과 언론·SNS 홍보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

IMPACT

함께한 중소 브랜드

누적 364개

온·오프라인 방문객
2026년 10월 기준

누적 52만 명

팝업스토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영업자원 절감 추산 효과
2023~2025년

약 64억 원
약 15만 시간

입점사 참여 만족도
2025년 기준

판로 개척
96.7%

교육 지원
98.2%

Interview. 송지나 Photo. 홍태식

작은 브랜드의 진심을 담은 팝업스토어

예솜 | 업사이클링 브랜드 니울(NiUl) 대표



안녕하세요. 업사이클링 브랜드 니울의 대표 예솜입니다. 니울(NiUl)은 'Nothing is Useless',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반려견 밍꾸와 산책하며 주운 알록달록한 병뚜껑으로부터 출발했죠. 병뚜껑의 쓸모를 찾아, 휴대폰 스트랩 같은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병뚜껑 줍는 일에도 동참해 주셔서 지금은 환경을 생각하는 동시에 예뻐서 갖고 싶고, 실용적이어서 오래 쓰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니울은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소개하다 보니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팝업을 열어보고 싶어도 비용과 운영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카카오페이의 '오래오래 함께가게'는 저희에게 오프라인 판매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마케팅과 경영, 세무처럼 사업에 필요한 교육까지 제공한다는 점도 반가웠죠. 함께하는 동안 카카오페이가 각 브랜드의 고민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고,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번은 팝업스토어를 불쑥 찾아갔는데, 제가 대표인 줄 모르셨던 스태프분이 제품의 특징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니울을 깊이 이해하고, 처음 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소개해 주시니 참 감사했어요. 나중에는 어떤 제품에 관심이 쏠리는지, 고객들의 반응도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제품과 팝업을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참고가 됐죠.

'2025 오래 리더스'로 선정된 뒤에는 다른 브랜드 대표님들에게 콘텐츠를 만들어온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멋진 결과만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시도와 시행착오까지 우리 브랜드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돌이켜보면 니울도 그런 나눔 속에서 자랐거든요. 병뚜껑 모으는 고민을 나누니 병뚜껑을 보내주는 팬들이 생겼고, 실패하는 과정을 공유하니 응원하는 마음들이 모였어요. 그 마음들에 대한 보답으로 꾸준히, 지구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긴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카카오

랜선 너머,
진짜 구매자를 찾아서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그 가치를 알리는 일도 중요한 요즘, 카카오쇼핑은 작지만 건강한 브랜드의 디지털 성장을 돕습니다. 좋은 제품과 랜선 너머 고객을 연결하고, 꾸준히 소통하며 잠깐의 만남을 두터운 신뢰로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카카오는 선물하기와 톡딜 등 쇼핑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역량과 매출 성장을 응원합니다. 플랫폼 입점부터 상품 홍보 및 고객 소통 교육을 진행하고, 주요 구좌 노출,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우수 판매자를 육성합니다.

-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플랫폼 입점, 기획전 노출, 쿠폰광고 등 마케팅 지원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교육 멘토링과 마케팅 지원을 연계해 우수 판매자 육성
- **톡스토어 입문교육:** 플랫폼 운영과 판매 전략을 익히는 실무 교육

IMPACT

판매자 성장 지원
2026년 1~10월, 판매자 ID 기준

선물하기 1,900개 사,
톡딜 2,425개 사
4,325개 사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소상공인 육성
2026년도 기준

연간 639개 사

비즈니스 세미나 플랫폼 소상공인 교육

연간 5만 명

STORY

배우고, 시도하고, 소통하며 고객과 더 가까워졌어요!



좋은 기름을 알리는 일, AI가 조력자예요!

미식상회(대흥참기름)

좋은 원물을 저온에서 볶고 압착해 참기름과 들기름을 만드는 미식상회입니다. 정성껏 만든 제품을 더 잘 알리고 싶어 카카오쇼핑이 주최한 교육에 참여했어요. 톡딜 운영부터 AI로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법까지 배워 적용하니 업무 효율이 높아졌죠. 작은 브랜드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지원사업에 참여한 4~9월 매출은 6억 원을 넘겼고, 톡 채널 친구도 1.1만 명 늘었어요. 앞으로도 고객과 꾸준히 소통하며 좋은 기름의 가치를 전하고 싶어요.

소개하는 법을 바꾸니, 고객 반응도 달라졌어요

신선닭갈비(주식회사 리투)



춘천에서 만든 특제 양념과 국내산 닭 어깨살로 한입 닭갈비를 만들고 있어요. 카카오쇼핑 톡딜 교육에서 상세페이지와 상품명을 살펴보며 제품의 매력을 더 잘 소개하는 법을 배웠죠. 일부만 바꿨는데도 상품 노출과 고객 반응이 달라져 놀랐어요. 지원사업에 참여한 4~9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0% 늘었고, 톡 채널 친구도 3,000명 증가했어요. 무엇을 바꿔야 할지 방향이 보이니 다음 시도도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이제 다른 제품들도 저마다의 매력을 살려 소개해 보려고요!

구매자들이 주신 아이디어로, 전용 상품을 기획해요!

만수동떡볶이만떡

저희는 매일 생산되는 생밀떡에 직접 담근 일곱 가지 비법장을 더하는, 떡볶이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노력만으로 잘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죠. 카카오쇼핑과 함께한 TOPS와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서 교육·멘토링을 받고 기획전에 참여하며 성장의 힌트를 찾았어요. 더딘 성장이 우리 능력이나 제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이제 새로 만난 3,000여 명의 고객과 소통하며, 구매자들의 아이디어로 톡딜 전용 메뉴를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만드는 새 상품, 기대해 주실 거죠?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서비스 | 카카오뱅크

가게를 돌볼 시간까지 생각하는 금융

사장님에게는 필요한 자금만큼,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를 돌볼 시간도 소중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대출과 이자·보증료 지원으로 시간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덜며 소상공인이 가게 운영에 집중할 여유를 마련합니다.

개인사업자 서비스

카카오뱅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앱에서 상품 비교부터 신청·승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협약상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자 지원과 카카오뱅크만의 이자 캐시백을 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단에 대한 특별출연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으로 대출 기회를 넓히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비대면 대출:** 상품 비교부터 신청·실행까지 앱으로 처리해 은행 방문과 이동에 드는 시간 절약
- **이자 지원:** 사업장 소재지와 협약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혜택을 연결해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이자캐시백:** 지원 대상 협약상품 이용 고객에게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자금 마련에 드는 금융 비용 경감

IMPACT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170만 명

대출 고객 중 중·저신용자

5명 중 3명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누적 공급액

약 7조 원

이자 지원 보증서 대출을 통한 이자 절감액

240억 원

STORY

초보 사장에게는 아껴주신 시간과 비용이 가장 큰 응원이죠

은행에 갈 시간을 가게에 쓸 수 있었어요!

김O언 | 소품숍 사장님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은행에 한 번 다녀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영업시간과 은행 업무시간이 겹쳐 대출 상담을 미루기도 했죠. 그러다 알게 된 카카오뱅크에서는 앱으로 신청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저 같은 사장들에게는 대출 조건만큼 이용 과정도 중요한데, 꼭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은행에 오가는 시간을 아껴 가게를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낀 이자만큼 생겨난 여유

박O만 | 음식점 사장님

매달 임대료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에요. 카카오뱅크를 통해 지역 이자 지원이 적용되는 보증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금융 비용을 꽤 많이 절감할 수 있었어요. 지원제도를 따로 알아보는 것도 일이었는데, 앱에서 사업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죠. 아낀 비용을 가게 운영에 보탤 수 있게 되었으니, 더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 맞이해야죠!

돌아온 이자, 새로운 시작을 응원받는 기분이더라고요

임O우 | 스튜디오 사장님

창작 스튜디오를 열며 대출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담보도 없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다른 창작자의 소개로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을 알게 되었고 앱으로 신청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이후에는 대출할 때 낸 이자의 일부도 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응원받은 기분이었어요.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해보려고요!

소상공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녀 성장 지원 | 카카오뱅크

자녀 걱정 덜고,
가게에 마음 쏟도록

가게 운영과 자녀의 학업·진로를 함께 책임지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부모님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도록 카카오뱅크가 함께합니다. 부모님이 안심하고 가게에 집중하는 동안, 아이들은 든든한 멘토와 함께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자녀 성장 지원

카카오뱅크가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하는 '모두의 멘토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대학생과 청소년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정기적인 학습·정서·진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성장지원금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부모님이 자녀 교육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모두의 멘토링:** 대학생 멘토와 청소년 멘티의 주 4시간 온라인 멘토링·학습 지도·정서 지원
- **멘토링 캠프 & 리프레시 캠프:** 멘토·멘티 팀 빌딩, 진로 탐색 프로그램, 사회인 멘토링을 통한 역량 강화
- **패밀리데이:** 가족사진 촬영 등 함께하는 활동으로 추억을 쌓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시간

IMPACT

2026년 참여 인원

청소년 멘티 100명,
대학생 멘토 50명

150명

멘토링 운영

2026년 3~12월

주 4시간 온라인 멘토링

10개월

청소년 성장지원금

초등학생 50만 원,
중학생 8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연간 50~100만 원

대학생 멘토 응원금

10개월 활동 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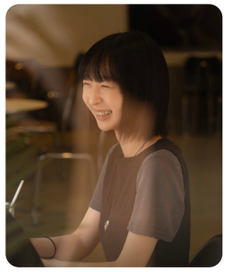
300만 원

STORY

서로의 세상을 넓혀주며, 다양한 내일을 그려가는 사이



MENTOR. 유림



자기소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이유림입니다. 한 학생을 꾸준히 이끌어주는 멘토가 되고 싶어 '모두의 멘토링'에 참여했어요.

함께한 활동은? 친구처럼 대화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주 활동지를 만들었어요. 'Copy the Look!'에서는 서로의 추구미를 영어로 적으며 공부도 하고 서로를 알아갔죠.

우리의 성장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했는데 저도 새로운 관심사를 찾았어요. 활동지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며 콘텐츠 기획에도 흥미가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멘티에게 취향은 정반대여도, 나연이의 꿈을 응원해. 우리 같이 다짐한 것들 꼭 이루자♡

MENTEE. 나연



자기소개 경기상업고등학교 뷰티디자인과 고나연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따라 미용을 전공하고 있어요. 고3이 되며 복잡해진 진로 고민을 가까운 선배와 나누고 싶었죠.

함께한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로 배우니 영어가 재밌어졌어요. 'My Salon Opening'으로 미래의 제 헤어숍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서로의 가방 속 물건을 소개하며 정반대인 취향도 알게 됐죠. 쌤은 확실히 어른 취향이더라고요!

우리의 성장 멘토 쌤과 함께하며 제가 좋아하는 일, 앞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오래 기억할 소중한 만남이에요.

멘토에게 쌤 덕분에 영어도 배우고, 제 꿈도 더 구체적으로 그려봤어요! 쌤처럼 멋진 20대가 될게요♡

제가버치 | 카카오

다음 농사를 이어갈 힘

정성껏 기른 먹거리가 제값을 인정받고, 그 결실이 다음 농사를 이어갈 힘이 되는 선순환을 그립니다. 카카오메이커스 제가버치는 생산자의 수고와 정성이 우리 식탁까지 온전히 전해지는 길을 엽니다.

제가버치

우리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인정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상생협력 브랜드입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술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판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재고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농축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납니다.

- **화천 애호박:** 제가버치의 첫 프로젝트, 2시간 만에 15톤 이상 매진
- **72시간 달인 금산 홍삼액:**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금산인삼의 재탄생, 첫 PB 상품
- **영암 밤고구마:** 무농약으로 맛과 영양 듬뿍, 춘식이 에디션으로 더 특별하게

IMPACT

'제가버치'를 통해 판매된 원물
2026년 10월 기준

총 8,905톤

제값을 다한 농축수산물

342만 9,312개

누적 거래량

674억 원



STORY

Interview. 송모연 Photo. 정찬웅

농부가 흘리는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유도경 | 대파트먼트 대표, 농부

대파를 재배하고, 다듬고, 식품으로 만드는 농부 유도경입니다. 10년 정도 꽃집을 운영했고, 조경 회사에서도 일했어요. 논산과 인연이 있어 잠시 쉬러 왔다가 우연히 농사를 짓게 됐어요. 지금은 대파의 모든 것이라는 뜻을 지닌 대파트먼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농부에게 제값은 다음 농사를 이어갈 힘이에요. 열심히 길렀지만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그다음 해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거든요.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것처럼 농부가 기른 농산물의 제값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건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공급이 많아져서, 날씨가 좋지 않으면 좋은 상품이 없어서 가격이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진 값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농사는 사람은 물론, 하늘의 도움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지금 단가보다는 살짝 높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2025년 6월, 카카오메이커스 제가버치에서 제게 해주신 질문이에요. 가공비에 얼음팩, 보냉백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려면 비용이 든다고 설명드리니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무조건 저렴하게,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저희의 노력과 그에 따른 비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셔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다음부터 제가버치에는 중간 비용을 투명하게 공유해요. 제 파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는 사실, 하기 힘들어하고 꺼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흘리는 땀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제가버치예요.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나중에 더 건강한 회사로 성장해서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어요. 함께 일하며 다 같이 성장하고, 힘든 날에도 웃으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저에게 '같이 잘 산다'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디지털 기술이 낯설고 장사하기도 바쁜 상인들을 설득했어요.
카카오의 기술과 전문성에 우리가 아는 골목의 매력을 더해보자고요.

그렇게 톡 채널에 약 4,800명의 온라인 단골이 생겼습니다.

김용조 | 북촌계동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농사는 사실, 누구나 하기 힘들어하고
꺼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흘리는 땀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해 주신 게 카카오예요.

유도경 | 대파트먼트 대표, 농부

카카오는 작은 브랜드인 니울에게 오프라인 판매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와 함께, 다른 브랜드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온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닌 다른 사람도 같이 잘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
같이 잘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예솜 | 업사이클링 브랜드 니울(NiUl) 대표





안심,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있다는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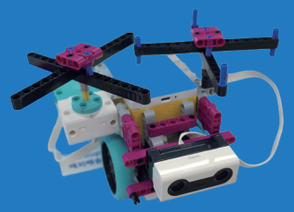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선행을 향해,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로 위 히어로즈

미래의 이동, 우리가 책임져요! AI 주니어랩

도로 위 사람들 곁에서, 상생의 다음 길을 엽니다 모빌리티 종사자를 위한 상생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 카카오모빌리티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

운행 시간이 생계와 직결되기에, 아파도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생계 걱정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며, 기사님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함께 지키는 안전망을 마련합니다.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운영한 사업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전국 택시기사 가운데 지원 기준을 충족한 분들께 비급여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카카오 T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기사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질병·사고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생계비 지원:** 치료로 운행을 쉬는 동안 기사와 가족의 생활 부담 완화
- **전국 택시기사 대상:** 카카오 T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IMPACT

지원 대상

질병 및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전국 택시기사 중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의료생계비 지원 규모 및 1인 최대 지원액

약 43억 원
1인 최대 1,300만 원

지원받은 택시기사님

1,240명

지원 문의 및 상담 신청

1만 6,271건

STORY

조금만 버티자 대신, 치료부터 받자고 말할 수 있도록

권다은 | 아이들과미래재단 주임



택시기사님들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운전대를 놓아야 하고, 곧바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치료를 뒤로 미루기도 하죠.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은 그런 순간에 기사님들이 생계 걱정보다 치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까지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특히 의미 있게 느낀 건 카카오 T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이에요. 일상의 이동을 책임져 온 분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할 때 혼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기사님들이 몸이 아플 때 '조금만 더 버티자' 대신 '치료부터 받자'고 생각하셨으면 해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회복할 시간을 가지며, 가족과 일상을 꾸려갈 힘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우리의 사업이 택시기사님들이 아플 때, 기꺼이 기댈 수 있는 안전망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기사님들의 한 마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불어난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생활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지원을 받아 생활이 안정을 찾았고,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게 된 지금이 참 행복합니다. - 김O현 택시기사

택시기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마음 기억하며 승객 한 분 한 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박O태 택시기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저와 가족 모두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 이O만 택시기사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도로 위 히어로즈 | 카카오모빌리티

선행을 향해,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매일 오가는 도로 위에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숨은 선행을 조명해 모빌리티 종사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일상의 용기가 존중받고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도로 위 히어로즈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웃을 위해 용기를 낸 모빌리티 종사자들의 선행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시민들이 보내온 사연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히어로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 시민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도로 위 따뜻한 선행과 이야기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생명 지킴:** 살신성인의 자세로 타인의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구한 자
- **정의 구현:** 중대 범죄 확산 예방에 기여하는 등 의로운 행동을 한 자
- **친절 감동:** 의무 이상의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 도움과 감동을 준 자
-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자

IMPACT

접수된 사연	선정된 히어로즈
약 2천 건	41명



STORY

Interview. 이슬기 Photo. 정찬웅

그날 아이를 구한 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장복선 | 대리기사

낮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손님을 모시는 장복선입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님과 마주칠까 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일했어요. 그런데 한번은 손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귀한 사람이라며 운전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감동했죠. 당시 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운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저를 자신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라봐 주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어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도 생겼고요.



어느 날 밤, 큰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린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도로를 건너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반대편에서 차들이 달려오는 차선으로 넘어갈 것 같았죠.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나가 아이를 안고 보도로 옮겼어요.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 근처 식당에 아이를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무사히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죠. 제가 운전석 문도 열어놓고 무작정 뛰어나갔다고 했잖아요? 제 차 뒤에 차가 다섯 대 정도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동안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그대로 기다려준 거예요. 그날 저 혼자만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함께 구해주신 거죠.

'도로 위 히어로즈'에 선정된 뒤에는 주변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됐어요. 동료 대리기사님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서로의 선행을 나누고 '다음엔 네가 히어로즈가 돼봐라' 응원하고요. 저 말고도 선행을 실천하는 기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활동들이 더 알려지고, 좋은 기사님들의 진심이 더 자주 주목받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많은 도로 위 히어로즈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AI 주니어랩 |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의 이동, 우리가 책임져요!

자율주행차, 배송 로봇, 하늘을 나는 이동 수단, 모빌리티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님들의 자녀·손자녀에게 이동의 미래를 함께 그리며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선물합니다.

AI 주니어랩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 자녀·손자녀를 대상으로 시작, 현재는 택시·대리·퀵 기사님들의 자녀·손자녀를 포함해 전국 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힌 AI·모빌리티 체험형 교육 캠프입니다. 참가자들은 코딩과 AI 로봇을 결합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기획·제작합니다.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기술의 실제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심과 진로를 구체화합니다.

- **AI·코딩 실습:** 코딩과 로봇 조립을 배우며 피지컬 AI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 체험
-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제작:**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견한 뒤 팀별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해 실제 장치와 서비스로 구현
- **현직자 멘토링·발표:** 카카오모빌리티 실무자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고, 가족, 친구들 앞에서 완성한 결과물을 직접 발표

IMPACT

6기 종합 평균 만족도

학생 4.71점
학부모 4.91점
(5점 만점)

AI 주니어랩 시작

2023년

1~6기 총 지원자

1,836명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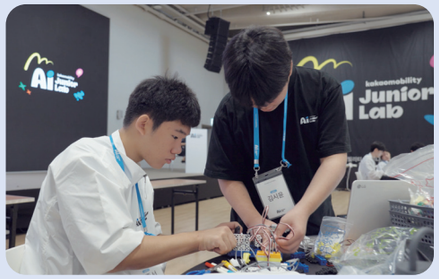
피지컬 AI를 이해하고 꿈에 시동을 겁니다

안전한 밤길을 위한 AI를 만들며, 제 미래도 그려봤어요!

임시윤 | 학생

우리 팀은 깜깜한 밤길에서 노약자나 청소년과 동행하며 불안감을 줄여주는 '길벗 피지컬 AI'를 만들었어요. 막연했던 아이디어를 직접 구체화하면서 AI가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AI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AI 주니어랩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힘을 모으니 코딩도 발표도 해낼 수 있었어요

김민서·권지율 | 학생

이어폰을 끼고 걷다가 차나 자전거 소리를 듣지 못해 생기는 사고를 줄이고 싶었어요. 거리 감지 센서로 가까워지는 이동 수단을 파악하고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었죠. 코딩도 발표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팀원들과 함께하니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하나의 아이디어를 같이 완성한 과정들이 하나하나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AI는 이미 삶의 일부더라고요!

박지회 | 이아린 참가자 학부모

AI 때문에 미래의 직업이 어떻게 달라질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AI를 활용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모빌리티 종사자를 위한 상생 | 카카오모빌리티

도로 위 사람들 곁에서, 상생의 다음 길을 엽니다

이동의 혁신이 모두에게 반가운 변화가 되려면,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종사자의 안전과 일터를 지원하고 공익법인을 세워, 사람과 산업의 나란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모빌리티 종사자를 위한 상생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일터 개선을 위해 보험 가입, 교육, 대리기사 이동·쉼터 지원 등을 이어갑니다. 또한 상생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2025년 2월 공익 재단을 설립하였고, 2026년 9월, '넥스트모빌리티상생재단'으로 재단명을 변경하며 모빌리티 미래 산업의 성장과 상생을 위한 역할을 넓혀갑니다.

- **모빌리티 공익사업 전개:**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
-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모빌리티와 기존 교통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 마련
- **미래 모빌리티 연구:** 빅데이터·AI·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교통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IMPACT

수수료 이익이 확대된 택시·대리기사님

21만 명

안심·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받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사님

58만 명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은 기사님

1.6만 명

STORY

이동을 책임져 온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하헌구 | 넥스트모빌리티상생재단 이사장,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이동은 몰라보게 편리해졌지만, 플랫폼과 기존 산업의 동등한 성장은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넥스트모빌리티상생재단은 이 숙제에 대한 응답으로 출발했으며, 2025년 2월 출범 이후 모빌리티 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존 교통 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택시기사 의료비 지원'과 '도로 위 히어로즈'를 통해 종사자의 건강을 돌보고, 이들의 숨은 헌신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올해는 대리·퀵·배달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교육·휴양 공간을 열고, 이동형 쉼터 지원 협약을 맺으며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화물주선사를 위한 지원도 준비합니다. 우리의 이동을 책임지는 분들이 아플 때 치료받고, 지칠 때 쉬며, 변화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는 것. 재단이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상생입니다.

종사자의 오늘을 돌보는 일을 넘어, 산업의 내일을 모색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율주행과 피지컬 AI가 가져올 변화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나 일터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로보택시 시대에 대비한 정책연구를 통해 업계·정부·학계와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도로 위를 지켜온 분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겠습니다.

재단의 새 이름 '넥스트모빌리티상생재단'에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넥스트'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다짐이며, '상생'은 설립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달라져도, 우리가 곁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 우리의 일상을 이어주는 분들이 기술 변화의 그늘에 남겨지지 않도록, 더 공정한 모빌리티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동안,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 혼자만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함께 구해주신 거죠.

장복선 | 대리기사

이어폰을 끼고 걷다가
차나 자전거 소리를 듣지 못해 생기는
사고를 피지컬 AI를 활용해 줄이고 싶었어요.
코딩도 발표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팀원들과 함께하니 끝까지 해낼 수 있었죠.

김민서·권지율 | AI 주니어랩 참가 학생





누구나 건강을 돌보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기사님들이 건강 때문에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권다은 |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 파트너기관 주임

자기다움,
내 이야기를 나답게 펼칠 기회

- 홀로 품은 이야기가 세상에 닿도록 예비창작자 교육 파이프라인
- 임대료 고민할 시간에, 더 좋은 작품을 고민해요 창작공간 지원
- 음악은 나답게, 무대는 함께 인디 아티스트 지원
- 어느 날, 제 글쓰기가 책이 되었습니다 브런치 공모전
-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의 기반 창작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예비창작자 교육 파이프라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홀로 품은 이야기가 세상에 닿도록

가슴 깊이 품은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창작자에게는 배움의 기회와 가능성을 믿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교육부터 집중 창작 캠프, 멘토링까지 예비·신인 창작자가 작가로 향하는 여정에 함께합니다.

예비창작자 교육 파이프라인

카카오창작재단이 예비·신인 창작자의 성장 단계에 맞춰 설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현업의 노하우를 배우는 '그로우업 톡앤톡', 창작 역량을 심화하는 '부스트업 톡앤톡', 배움을 작품으로 구현하는 '그로우업 창작캠프'를 연계해 배움에서 실전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신의 작품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창작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 **그로우업 톡앤톡:** 웹툰·웹소설·음악 분야 현업 전문가의 무료 오프라인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창작 노하우 학습
- **부스트업 톡앤톡:** 현업 작가와의 심층 대화를 통해 이야기 구성과 연재 경험, 창작 과정의 고민을 나누고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 탐색
- **그로우업 창작캠프:** 멘토 작가·카카오엔터테인먼트 PD와 4박 5일간 집중 창작, 일대일 멘토링과 피드백으로 원고 완성도 향상
- **온라인 창작 아카데미:**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부터 음악 분야까지 유명 작가들의 강의를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무료로 학습

IMPACT

그로우업 창작캠프

멘토 작가
6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PD
6명

예비·신인 창작자
30명

그로우업 톡앤톡 회차 및 참여자

26회
2,600명

온라인 창작 아카데미 회차 및 참여자

381차시
1.1만 명

Interview. 김지아 Photo. 정찬웅

수없이 고쳐 쓰는 동안 곁을 지켜준 사람들

황은솔 | 웹소설 작가



안녕하세요. 첫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의 카카오페이지 공개를 앞두고 있는 황은솔입니다. 원래 배우 매니저로 일했어요. 촬영장에서 '나도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드라마의 원작이 웹소설이더라고요. 막상 쓰려니 읽을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전개 방식도 낯설고, 한 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죠.

카카오창작재단의 온라인 창작 아카데미에서 기초를 익히고, '그로우업 톡앤톡' 강연을 통해 현업 작가님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화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슬럼프를 견디는 태도, 글을 쓰는 방법과 계속 쓰는 간절함을 배웠죠. 이후 '그로우업 창작캠프'에서는 4박 5일 동안 매일 피드백을 받으며 원고를 고쳤어요. 멘토 작가님은 주인공의 감정선을 보완하라고 짚어주시면서도, 공포 소재를 보는 눈은 제 강점이니 살려보라고 하셨죠. 세 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캠프가 끝난 뒤에도 약 4개월 동안, 원고를 계속 다듬으며 써 내려갔어요. 처음에 혼자 썼던 다른 작품은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는데, 두 번째 도전에서는 여러 곳에서 답을 받아 계약할 출판사를 고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마감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완결을 내고 나니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편을 끝까지 써봤다는 경험이 남았으니까요.

캠프에서 만난 룸메이트와는 지금도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계약이나 출간을 준비하다 생긴 고민도 나누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하죠. 글을 쓰다 보면 혼자 막막함을 느끼는 때가 많은데, 그 과정 내내 카카오가 함께해 주셨고, 이렇게 좋은 문우들도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는 꿈은 이뤘으니, 저처럼 막막할 누군가의 이야기에 답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글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아는 같이도생의 순간이거든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창작공간 지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대료 고민할 시간에, 더 좋은 작품을 고민해요

작가에게 작업실은 일상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만의 세계를 마음껏 펼치는 공간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들이 작업실 임대료 부담을 덜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과 몰입 가능한 일상을 뒷받침합니다.

창작공간 지원

카카오창작재단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해 웹툰 작가들의 작업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천 웹툰융합센터와 비즈니스센터 입주 작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작가들이 동료와 교류하며 작품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자극과 믿음:** 동료와 교류 가능한 환경에서 창작의 자극을 얻고, 임대료 부담을 덜어 오래 작업할 수 있는 창작의 안정적 기반 마련
- **건강과 지속가능성:** 작업 환경 개선으로 건강 문제에 따른 휴재 감소, 원고 납품과 수익 안정화
- **투자와 퀄리티:** 임대료 절감분을 장비·유료 소스·자료 수집에 재투자해 작품의 완성도 상승

IMPACT

창작공간 지원 사업 선정 작가
2024~2026년

누적 472명

창작공간에서 새로 준비 중인 작품

84편

웹툰 창작 및 연재 작품
2024~2026년 누적

166편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한 웹툰

애니메이션화
8편

수상
9편

IP 영상화
7편

해외 진출
36편

각자의 이야기를 그리며, 느슨하게 연대하고 협업하는 플랫폼

지민 | 웹툰 작가



안녕하세요. 〈나빌레라〉와 〈더 그레이트〉, 〈랑데뷰〉 등에서 그림을 맡아온 웹툰 작가 지민입니다. 올해로 데뷔 17년 차예요. 오랫동안 집에서 혼자 작업했는데, 어느 순간 일과 생활의 경계가 사라지더라고요.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집 밖에 나갈 일도 적어서 마치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지금은 부천 웹툰융합센터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실에 오면 일하고, 집에 가면 푹 쉬며 일과 생활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툰은 연재를 준비하거나 쉬는 동안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작업실을 유지하는 비용도 부담이 컸거든요. 카카오창작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은 작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좋은 작업을 이어가는 데 정말 큰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첫 작품을 준비하는 신인 작가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작업실에서는 보조 작가들과 바로 소통하고, 복도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요. 함께 밥을 먹으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내려가죠. 각자의 마감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도 얻고요. 저도 신인 때 선배들에게 작업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아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먼저 받은 도움이 다음 사람의 힘이 될 수 있도록요.

서로가 서로에게 휴식처가 되어주는 것, 제가 생각하는 같이도생의 모습이에요. 복도에서 잠시 마주쳐 인사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며 잠깐 대화하는 것만으로 일상에 숨 쉴 틈이 생기니까요. 각자의 이야기를 그리지만 함께 애쓰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든든해요. 그런 인사와 안부가 쌓여,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인디 아티스트 지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은 나답게, 무대는 함께

서로 다른 개성과 새로운 시도가 존중받는 것, 우리 음악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일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신인·인디 아티스트의 창작과 무대를 지원하며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의 가능성을 넓혀갑니다.

인디 아티스트 지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카카오창작재단과 함께 신인·인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공연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멜론을 통해 개성 있는 음악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라이브클럽 공연과 페스티벌 출연, 앨범 제작 등 다채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디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음악을 이어가고 더 많은 대중과 만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라이브클럽데이:** 홍대 라이브클럽의 대관료와 뮤지션 출연료를 지원해 공연장과 아티스트가 클럽 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
- **멜론 트랙제로:** 전문가가 선정한 플레이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개성 있는 음악을 소개하고 대중과의 만남을 확대
- **국내 페스티벌 지원:** 인디 뮤지션 페스티벌 무대 출연 지원(아시안 팝 페스티벌·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등)
-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타이틀 후원과 신인 아티스트의 앨범 제작·홍보 지원으로 음악적 다양성과 창작 활동 뒷받침

IMPACT

멜론 트랙제로 선정 아티스트
2022~2026년
1,400팀

라이브클럽데이 무대 및 출연료 지원
2024~2026년
누적 286팀

인디 아티스트 국내 페스티벌 출연 지원
2025~2026년
누적 32팀

한국대중음악상 연계 신인앨범 창작지원
2026년
4팀

처음 시도한 무대가 다음 공연으로 이어지도록

김대우 | 라이브클럽데이협동조합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부터 라이브클럽데이(이하 라클데)를 기획·운영해 온 라이브클럽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대우라고 합니다. 라클데는 홍대의 여러 공연장이 함께 만드는 '무경계 음악 축제'예요. 관객은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행운을, 뮤지션은 평소 자신의 음악을 듣지 않던 관객과 만나는 행복을 누립니다.

라이브클럽은 아티스트가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 인디 생태계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운영 여건이 넉넉지 않아, 공연을 이어가려면 공연장과 뮤지션들의 의지가 꼭 필요했어요. 카카오창작재단의 공연 대관료와 뮤지션 출연료 지원은 함께 무대를 준비하고 관객을 만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클럽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뮤지션들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요즘은 새 음반 활동을 시작하며 라클데 일정을 묻는 뮤지션도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더 많은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만난 관객이 팬이 되어 다음 공연에도 꾸준히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이어지려면 클럽이 문을 열고 뮤지션이 무대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함께 지켜주신 카카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로, LIVE IS HERE! 홍대 앞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서로의 곁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신온유(보컬)·하형언(키보드)·문정환(베이스) | 밴드 신인류

반갑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신인류입니다! 2025년 6월, 멜론 트랙제로 '이달의 아티스트'로 선정돼 첫 정규앨범 〈빛나는 스트라이크〉와 곡을 만들어온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저희를 모르던 많은 분들께 신인류만의 음악과 색깔을 알릴 수 있는 계기였죠. 이번에는 카카오의 '같이도생' 주제곡 제작에 참여했어요. 저희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희망이라는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듯, 서로의 곁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의 마음을 이번 곡에 담았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브런치 공모전 | 카카오

어느 날, 제 글쓰기가 책이 되었습니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라지만 책을 만드는 일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작가가 되는 시대, 카카오는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를 운영하며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글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멋진 이야기를 더해갑니다.

브런치 공모전

카카오의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가 출판사와 함께 작품을 발굴하고 책 출간을 지원하는 공모전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글을 엮은 '브런치북'으로 응모하면, 파트너 출판사가 대상작을 선정해 책으로 출간합니다. 카카오는 상금과 출간 후 마케팅을 지원하며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독자에게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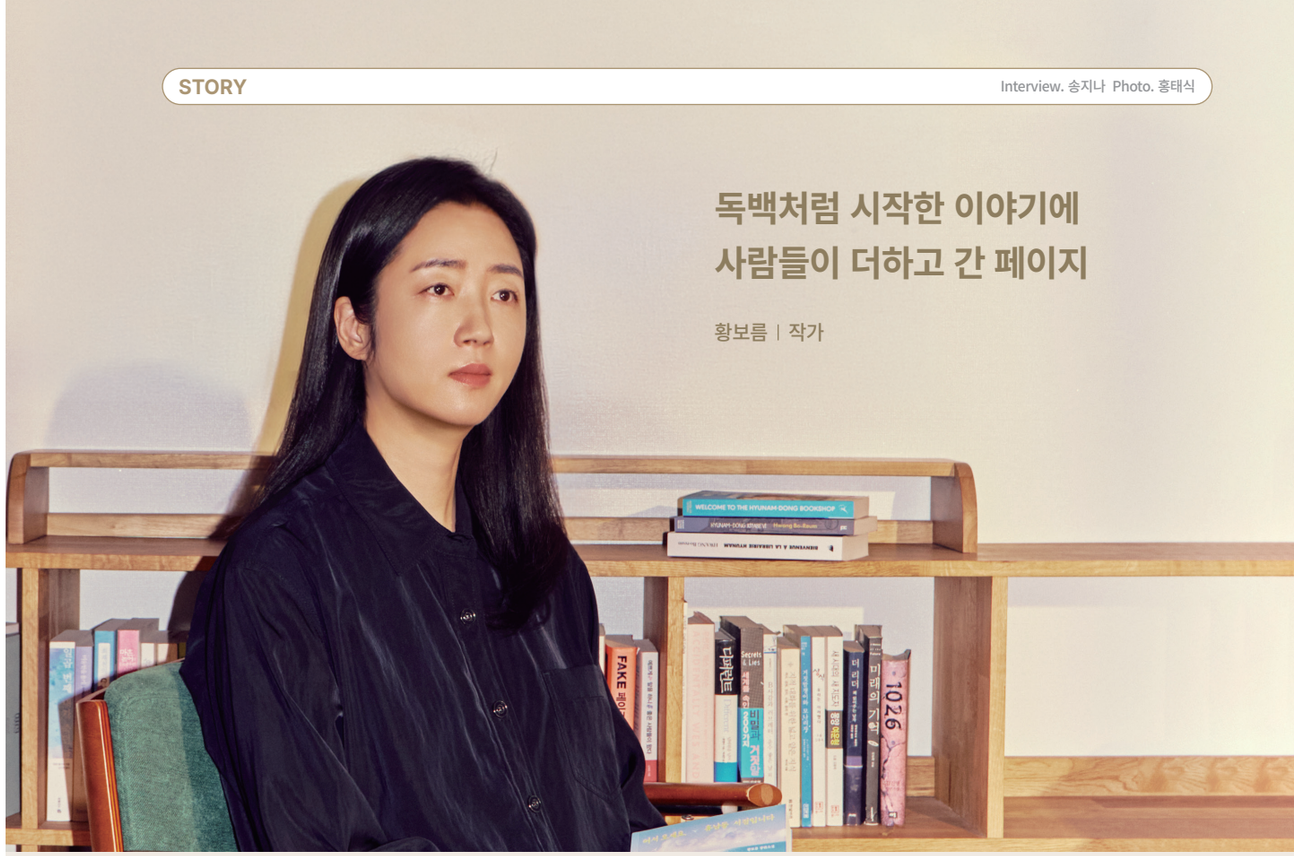
- **작품 발굴:** 브런치 플랫폼에 연재한 글을 브런치북으로 엮어 응모하고, 파트너 출판사의 심사를 통해 출간할 작품 선정
- **출간 지원:** 파트너 출판사를 통한 도서 출간과 대상 수상 작가 상금 지원
- **독자 연결:** 출간 기념 기획전과 전시, 북토크 등으로 작품을 소개하고 독자와의 만남 확대

IMPACT

브런치 출간 작가 수	브런치에서 탄생한 베스트셀러 TOP 10 판매액
6,200명	470억 원

STORY

Interview. 송지나 Photo. 홍태식



독백처럼 시작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하고 간 페이지

황보름 | 작가

"승우는 좋아하는 일을 5년 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5년 했다. 어떤 삶이 더 나았을까?" 제가 쓴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의 한 구절입니다. 저도 회사원일 때는 제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사 후 시작한 글쓰기는 달랐죠. 누가 읽어주지 않아도 쓰는 과정이 즐거웠고, 이 일은 계속하고 싶었어요.

브런치에 글을 올리며 만난 독자들은 제 문장을 다시 살피게 했어요. 어떻게 읽힐지 생각하다 보면 혼자서는 보이지 않던 부분도 보였거든요. 한두 명이라도 더 읽어주길 바라며 응모한 브런치 공모전에서 출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브런치 관계자와 원고를 읽고 골라주신 심사위원 덕분에, 연재하던 글을 전자책으로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출간 확정 뒤에는 출판사 편집자님과 몇 달 동안 퇴고와 교정·교열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제 글을 소설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읽고 의견을 주신다는 게 무척 새로웠죠. 다행히 그렇게 나온 전자책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후 종이책으로도 출간할 수 있었고, 번역가님들의 손을 거쳐 해외 독자와도 만나게 됐어요. 원고를 함께 다듬는 사람부터 책을 알리고 다른 언어로 옮기는 사람까지, 우연히 시작한 글쓰기를 통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다녀온 군산 마리서사 팝업에서는 브런치 팀, 출판사, 지역 서점 분들과 함께 독자들을 맞이했어요. 책이 많이 읽히고 서점이 오래 북적이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 같았죠. 브런치는 이렇게 제 글을 읽고, 다듬고, 더 많은 독자에게 전해줄 사람들을 연결해 줬어요. 그 만남들을 거치며 플랫폼의 역할을 실감했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은 혼자였지만, 그 이야기가 책이 되어 독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 수 없다는 사실, 그를 잊지 않고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기에 오늘도 다시 백지 앞에 앉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창작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의 기반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보상은 새로운 작품과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기술과 축적된 경험으로 국경을 넘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며,
창작의 성과가 다시 창작으로 이어지는 K-콘텐츠 생태계를 지켜갑니다.

창작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축적한 불법 유통 대응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저작권 보호 종합 시스템 '다크체이서'를 구축했습니다. 다크체이서는 탐지부터 신고, 도메인 추적, 대응 이력 관리까지 흩어져 있던 대응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 불법 콘텐츠 유통 통합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침해 패턴과 사이트 간 연관성을 분석해 반복 침해와 신규 유출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자체 워터마크 기술로 최초 유출자까지 식별합니다. 사후 삭제를 넘어 사전 예방까지 가능한 체계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킵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만의 독자적인 불법 콘텐츠 대응 전략 수립**
  - **Fast Track**
    소규모 불법 유통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추진(대응 기간 2~24시간)
  - **Deep Research**
    대규모 불법 유통에 대한 심층 추적·분석으로 원천 차단 추진(대응 기간 1주~2개월)

IMPACT

불법 유통 콘텐츠 삭제 및 차단 대응
11억 건

불법 게시물 URL 탐지
월평균 36만 개

화이트리스트 패턴 관리
1,000개 이상

STORY

K-콘텐츠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작품의 권리도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서영석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글로벌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은 이제 단순한 저작권 보호 차원을 넘어, K-콘텐츠 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웹툰 산업이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웹툰 IP가 그 권리와 가치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만사모)을 구심점 삼아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정부 부처는 강력한 행정력과 수사력으로 제도를 실행하며, 여러 민간 단체와 플랫폼, 창작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완벽한 '원팀(One-team)'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 국회의원(국민의힘),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웹툰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대표 장르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법 유통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은 단순히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으며, 창작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창작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작품에 대한 투자와 창작 기회까지 위축시켜 웹툰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만사모)에서도 불법 웹툰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는 물론,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환경 정립, 웹툰 IP의 다양한 활용과 우수 사례 연구, 웹툰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며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그리지만 함께 애쓰는 동료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든든해요.

지민 | 웹툰 작가



글을 쓰다 보면
혼자 막막할 때가 많은데,
그 과정 내내 카카오가
함께해 주셨고, 좋은 문우들도
만들어주셨어요.

황은솔 | 웹소설 작가



멜론 트랙제로 이달의 아티스트 선정을 인연으로
카카오 '같이도생' 주제곡 제작에 참여했어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 생기는 희망이라는 감정을 주제로,
함께 내일을 기대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신온유·하형언·문정환 | 밴드 신인류



가능성,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도전

금융의 사각지대, 기술로 채웁니다 핀넥트(FIN:NECT)

작은 팀의 큰 도전, AI 인프라로 더 멀리 로켓런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돕는 기술, 돕는 AI 테크포임팩트

지역에서 펼친 AI, 세계로! 카카오 AI 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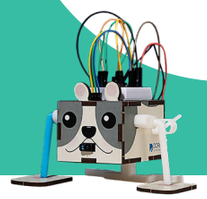














금융의 사각지대, 기술로 채웁니다

금융의 사각지대를 새로운 기술로 채우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포용금융과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금융이 닿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핀넥트 (FIN:NECT)

카카오뱅크가 후원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포용금융·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기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자금과 교육·컨설팅, 금융사 협업 및 투자 연계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의 불편을 해결하는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핀넥트 챌린지:** 지역의 금융 불편과 AI 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대학생·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 **핀넥트 이노베이션 스쿨:** 금융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갈 핀테크·포용금융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핀넥트 데모데이:** 투자유치를 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투자처를 찾는 VC를 연결해 후속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데모데이 진행

IMPACT

카카오뱅크 누적 기부금
2023~2025년, 3개년
37억 원

참여(예비)·선정(예비) 창업기업 수
640개 팀 · 186개 팀

참여기업 누적 경제적 성과
투자 410억 원 매출 691.3억 원

해외 진출 성과
미팅 141회 · 협력 체결 9건

가장 약한 고리에도 필요한 금융이 닿을 수 있도록

이해우 | 데일리페이 대표

안녕하세요. 선정산 서비스 '데일리페이'를 운영하는 이해우입니다. 장사는 잘되는데 정작 다음 상품을 준비할 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물건을 팔아도 정산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담보나 신용 이력이 부족하면 대출도 쉽지 않죠. 이미 발생한 매출을 먼저 현금화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선정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키우려면 여러 금융사와의 협업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카카오뱅크가 후원하는 '핀넥트 이노베이션 스쿨'을 알게 됐죠. 특히 협업 제안서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만 이야기했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관점을 바꾸고 나니 실제로 여러 금융사와 계약까지 이어졌고, 데일리페이 팀도 우리가 하는 일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고객이 한 분 있어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의 자금이 부족해 서비스를 찾으셨는데, 어느새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내는 브랜드로 성장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판매 노하우까지 나누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분의 성장을 데이터로 지켜봤기에, 저희가 한 사람의 다음 단계에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참 뿌듯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는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저희는 그중 가장 약한 고리에 금융을 전하고 싶어요. 어느 한 곳도 끊어지지 않고, 서로 기대어 각자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요. 소상공인들이 더 큰 브랜드로 자라고, 저희도 그 곁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제가 꿈꾸는 같이 잘 사는 모습이에요.



스타트업

로켓런처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작은 팀의 큰 도전, AI 인프라로 더 멀리

좋은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키워가는 작은 팀에게 기술과 비용은 큰 과제입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이용 지원과 교육·컨설팅으로 초기 부담을 덜고, 스타트업이 가장 잘하는 일과 새로운 시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합니다.

로켓런처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최대 3,500만 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이용 크레딧을 제공하고, 기초 교육부터 기술 컨설팅과 전문가 지원까지 연계합니다. 초기 인프라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덜어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고, 사업 성장에 맞춰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카카오클라우드 이용 비용 지원
- **기술 교육·컨설팅:** 클라우드 기초 교육부터 서비스 구축 과정의 기술적 고민까지 전문가 지원
- **성장 단계별 인프라 지원:**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때, 필요한 서버와 저장 공간을 유연하게 확장

IMPACT

로켓런처 지원 크레딧
2023~2026년 누적

22.3억 원 상당

지원 기업
2023~2026년 누적

162개

STORY

시작을 도와준 기술이 이제는 우리 교육을 움직입니다

김진한 | 주식회사 도로 대표



도로는 로봇공학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봉사활동에서 출발했어요. 지금은 오프라인 캠프 '도로랜드'와 온라인 교육 '도로버스'를 운영합니다. 학생과 강사가 늘면서 여러 유료 도구를 연결해 썼는데, 교육 콘텐츠 구상보다 시스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에 딱 맞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시점이었죠.

안산시 강소특구 상생사업을 통해 카카오클라우드를 만났습니다. 무료 크레딧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오프라인 교육으로 클라우드의 기본과 사용법을 익혔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비용 걱정을 덜고 배우며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작은 팀에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학생의 역량을 진단하는 프로그램과 맞춤형 수업을 위한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수업과 과제 제출, 피드백을 운영하는 서버와 용량이 큰 3D 캐릭터·학습 자료를 보관하는 저장 공간을 카카오클라우드에서 함께 관리해요. 사용법이 쉽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운영을 한눈에 살필 수 있어 편리하죠. 수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그에 맞춰 서버의 처리 능력을 늘릴 수 있어, 이용자가 많아져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지원이 끝난 뒤에도 저희는 카카오클라우드를 선택했습니다. 직접 써보며 사용하기 편하고 비용도 합리적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크레딧이 시작할 기회를 줬다면, 지금은 그 과정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시스템이 우리 서비스를 움직입니다. 다른 스타트업들도 카카오클라우드와 함께 배우고 시도하며, 시작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돕는 기술, 돕는 AI

세상은 흔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카카오임팩트는 기술로 일상의 장벽을 낮추며, 누구나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테크포임팩트

카카오임팩트가 사회혁신가와 기술 전문가를 연결해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과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이 함께 기술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과 문화를 대학과 현장, 커뮤니티로 넓혀갑니다.

-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대학생·사회혁신가·카카오 개발자 멘토가 현장 문제를 탐구하고 기술 해결책을 도출하는 수업
- **테크포임팩트 LAB:** 사회혁신가와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가 팀을 이뤄 현장에 필요한 '돕는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플랫폼

IMPACT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2023~2026년 누적

참여 대학 및 학생
18개교 · 811명

카카오 멘토
199명

사회혁신 조직
55개

돕는 기술 프로젝트
158개

테크포임팩트 LAB
2024~2025년 누적

돕는 기술
17개

협력
235명

전문가들이 투입한 시간
2만 9,760시간
(프로보노 가치 약 12억 원)

혼자 겪던 불편 대신 함께 웃도록 하는 기술

박원진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안녕하세요. 농·난청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박원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맡았는데, 학급회의 진행 방법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글자가 나타나면 좋겠다'고 상상했죠. 시간이 흘러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한 것도, 듣기 어렵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배움이나 대화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앞두고 받은 인공와우 수술은 또 다른 문제를 알게 해줬어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말소리를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반복해서 듣고 구별하는 청능훈련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혼자 꾸준히 이어가기도 쉽지 않았죠. 일상에서 더 재미있고 편하게 연습할 방법이 필요했지만, 비영리조직이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임팩트의 '테크포임팩트 LAB'을 통해 AI 엔지니어와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를 만났어요. 제가 인공와우 사용자로서 겪는 불편을 이야기하면 팀원들은 기술로 풀 방법을 찾았죠. 그렇게 AI 음성으로 말소리를 구별하는 '온소리 에코(Echo)', 공간 음향으로 소리의 방향을 익히는 '온소리 스피어(Sphere)', 음악으로 청각을 훈련하는 '온소리 바이브(Vibe)'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청능 재활이 병원에서만 하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일상에서 즐겁게 이어가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 모두 웃는데 저만 이유를 몰라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더 잘 들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술과 사람들이 함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도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 같은 공간에서 함께 웃는 것. 제가 생각하는 같이도생은 그런 장면입니다.

지역에서 펼친 AI, 세계로!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사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다음 도전을 도울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카카오 AI 돛은 지역의 기술 인재와 카카오의 기술 및 사업 경험을 연결해, 연구실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시장을 만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카오 AI 돛

카카오와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 함께 지역 내에 유망한 AI 창업팀과 프로젝트를 발굴·육성해 지역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카카오의 기술·인적 자산을 연결하고, 투자 및 기술 실증(PoC)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에서 탄생한 기술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AI 인재 양성:** 4대 과기원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AI로 해결하는 실전형 인재 육성
- **AI 창업 활성화:** 카카오의 기술·인적 자산과 투자 기회를 연결해 창업팀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
- **지역 산업의 AI 전환:**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문제를 AI로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사업모델 발굴





IMPACT

AI 육성 기금

500억 원 규모
(5년간 조성 계획)

AI 창업팀 발굴·육성 목표

2030년까지 100개 팀

협력 기관

4대 과학기술원
(KAIST, GIST, DGIST, UNIST)

STORY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 리벨리온 대표



안녕하세요.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의 대표 박성현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인재와 제조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싶어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접고 돌아와 창업했어요. 반도체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AI 시장은 빠르게 변하잖아요. 저희도 금융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에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로 방향을 넓히며 시장의 변화에 맞춰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리벨리온의 첫 투자사였던 카카오벤처스와는 창업을 준비하던 2019년 뉴욕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직 회사도 제품도 없던 시절부터 팀의 역량과 기술의 가능성을 믿어주셨고, 초기 투자에 이어 후속 투자까지 함께해 주셨죠. 창업 초기에는 월급이 끊기는 것부터 불안했어요. 제품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저희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려주는 투자자가 있다는 건 큰 의미였습니다. 덕분에 눈앞의 성과에 쫓기기보다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만든 반도체는 이제 실제 AI 서비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팀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모습을 보면,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한 동료와 투자자, 기술을 검증하고 선택해 준 파트너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자라고 대학을 다녔기에 '카카오 AI 돛'이 지역의 인재를 창업과 연결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좋은 기술만 있다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검증하고 고객을 만나며 실패해 볼 기회, 그리고 그 가능성을 오래 믿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든 크게 꿈꾸고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을 알아보고 함께 항해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더 잘 들으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술과 사람이 함께라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원진 |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저도 지역에서 자라고 대학을 다녔기에 '카카오 AI 돛'이
지역의 인재를 창업과 연결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든 크게 꿈꾸고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박성현 | 리벨리온 대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는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있어요.
저희는 그중 가장 약한 고리에 금융을 전하고 싶어요.
어느 한 곳도 끊어지지 않고, 서로 기대어 각자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요.

이해우 | 데일리페이 대표

자신감,
디지털 세상을 스스로 누릴 의지

AI 시대, 새로운 시민성을 고민합니다 미래 세대 AI 시민성 교육

디지털 금융을 만나는 경험이 키워준 꿈 청소년 금융 교육 지원

알고자 하는 진심이 열어준 세상 시니어 디지털 교육

연극 속 도박, 내 이야기가 되기 전에 제로라운드

좋은 세상을 앞당기는 활동가의 AI 배움 카카오테크 NGO AI 클래스













AI 시대를 사는 사람들

미래 세대 AI 시민성 교육 | 카카오·카카오임팩트

AI 시대, 새로운 시민성을 고민합니다

AI에게 답을 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시대,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기술의 보급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성 교육을 이어갑니다.

미래 세대 AI 시민성 교육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AI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연구 사업입니다. 2015년 시작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통해 감정·공감, 디지털 에티켓, 사이버 폭력 예방, 디지털·AI 리터러시 등 7대 핵심 역량을 교육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사이좋은 AI 포럼·네트워크'를 통해 메타인지와 회복탄력성을 더한 AI 시민성 교육 모델과 교육과정, 역량 측정 도구를 연구·개발합니다.

- **디지털 시민성 핵심 역량:** 감정 및 공감·디지털 에티켓·사이버폭력 예방·디지털 및 AI 리터러시·개인정보 보호·저작권·온라인 정체성
- **AI 시민성 핵심 역량:** 디지털 시민성 핵심 역량(7개) + 메타인지·회복탄력성

IMPACT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참여자 **30만 명**	누적 참여학교 **2,926개교 1.4만 개 학급**
소외지역(도서벽지·읍·면·리) 출강률 **34.1%**	누적 사회적 가치 환산액 **약 102억 원**

STORY

AI와 함께할 미래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이상욱 | 사이좋은 AI 네트워크 자문위원, 한양대학교 철학·인공지능학과 교수



AI의 발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적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미래는 개발자나 기업의 구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며,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술의 시대에 인간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AI 시민성(AI Citizenship)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AI 시민성은 기술의 혜택과 위험을 함께 살피고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에 맞춰 AI 개발과 활용 방향을 만들어가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시민성은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됩니다. 아이들이 AI를 배우며 그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알맞은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I 활용으로 매번 손쉬운 답을 구하다 보면 스스로 고민하고 실패하며 배울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에, 맡길 일과 직접 해볼 일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돌아보고 판단의 근거를 살피는 '메타인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해도 다시 도전하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카카오가 2015년부터 이어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AI 시민성 교육으로 확장하는 시도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과 공감,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AI 시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기술 기업과 교육계가 함께 바람직한 활용 기준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교원 연수와 수업 자료 개발 등을 뒷받침하는 공적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기술 기업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힘을 지킬 수 있도록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을 돌아봐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그 방향성에 거듭 질문하고, 필요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카오의 시도가 이러한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아이들이 AI와 함께할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금융 교육 지원 | 카카오페이

디지털 금융을 만나는 경험이 키워준 꿈

금융을 안다는 건 돈의 가치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합니다.

청소년 금융 교육 지원

카카오페이는 아동·청소년이 금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금융 교육을 지원합니다. 학교 연계 교육과 진로 체험, 대학생 참여 활동, 아동·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워갑니다.

-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 클래스:** 학교 연계 금융 교육과 진로 체험으로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향상과 진로 탐색 지원
- **사각사각 서포터즈:**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대학생의 다문화 청소년 금융 교육, 소상공인 디지털 환경 개선, 포용금융 콘텐츠 제작 활동 지원
- **도담도담 프로젝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에게 생활 속 디지털 금융 교육을, 보호자에게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IMPACT

학교 금융 교육 지원
2023~2026년

124개교
약 2만 명 수료
(연인원)

청년 디지털 금융 리더 양성 지원 기금

15억 원

다문화 청소년 디지털 금융 교육 수강생
2026년

205명

STORY

금융과 친해지는 일,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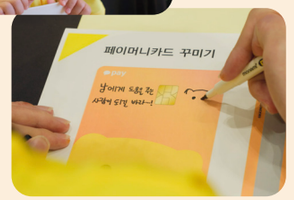
판교에서 아이들의 꿈이 훌쩍 자랐습니다

권건우 | 단산중학교 교사

단산중학교는 전교생 20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영주 시내에서도 차로 20~30분을 더 가야 하고,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 다니는 곳이에요. 카카오페이 사각사각 페이스쿨의 초청으로 아이들과 판교아지트를 찾아 금융을 배우고, 테크핀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벌써 “카카오페이에 입사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꿈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의 첫 경험, 쉽고 재미있게 바꿔드릴게요!

최은서 | 사각사각 서포터즈

금융은 한 번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 첫 경험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마련한 사각사각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소상공인의 금융 고민을 듣고, 교육과 콘텐츠 제작에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이 아직 닿지 않은 곳까지,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앞으로 용돈은 카카오페이로 받으려고요

도담도담 캠프 참가 청소년

카카오페이 도담도담 캠프에서 ‘틴즈넘버’를 배운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 같은 청소년도 어렵지 않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너무 큰 도움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앞으로 용돈은 카카오페이로 받으려고요!





시니어 디지털 교육 |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임팩트

알고자 하는 진심이 열어준 세상

**택시를 부르고, 길을 찾고, 가족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는 일까지.
카카오는 시니어가 디지털 기술을 직접 배우고 활용하며, 일상의 편리함과 금융의 안전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넓혀갑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임팩트는 시니어가 일상과 금융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교육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에서는 4인 1조의 전문 시니어 티처가 전국 기관을 찾아 카카오톡·카카오맵·카카오 T와 공공서비스, AI 활용법 등을 교육하며,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에서는 결제·송금 등 모바일 금융 이용법과 금융 사기 예방법을 다룹니다. 시니어 강사를 직접 양성해 배우던 사람이 가르치는 선순환도 만들어갑니다.

- **생활 디지털 교육:** 카카오톡·카카오맵·카카오 T부터 공공서비스와 AI 활용까지 일상에 필요한 디지털 사용법 교육
- **디지털 금융 교육:** 모바일 결제·송금과 금융 사기 예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일상 중심 실습형 교육 제공
- **시니어 강사 양성:** 8주간의 전문 교육을 거쳐 시니어 티처·페이티처를 양성하고 전국 복지관 출강과 단계별 성장 지원

IMPACT

방문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을 수강한 시니어
기관 462곳 교육 3,214회	1만 명
시니어 강사 '페이티처' 양성	**누적 교재·키트 배포**
202명	10만 개

어르신들이 택시도 부르고, 배달도 척척 시키는 그날까지

허수정 | 시니어 티처



안녕하세요. 부산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시니어 티처 허수정입니다. 첫 수업마다 어르신들께 제 꿈을 말씀드려요. 택시를 직접 부르고, 정부24에서 서류를 떼고, 입맛 없는 날에는 배달도 척척 시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배울 곳이 없어 지하철을 40분 넘게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이 더욱 반가웠습니다.

특히 금융 앱 수업은 본인 인증부터 카드 등록까지 단계가 많아 한 분씩 도와드리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그런데 카카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시니어 티처 네 명이 한 조로 출강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한 사람은 인증을 돕고, 다른 사람은 카드 등록을 도우면서 손을 든 어르신 곁으로 바로 갈 수 있었죠. 혼자였다면 엄두 내기 어려웠던 수업도 동료들과 함께여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직접 녹화해 보여드리고, 같은 내용도 몇 번이고 반복해요.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미리 알면 두려움이 줄고 직접 해볼 용기가 생기거든요. 같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어쩌면 '기다려주는 일'인지도 몰라요.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가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알려드리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우러 오신 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길 찾기도, 택시 부르기도 이제 제가 해볼래요!

안영순 어르신 | 80대 수강생

친구가 소개했을 때 처음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길 찾기'를 배운다는 문자를 보고 바로 신청했죠.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며 어디든 잘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러기 어려웠거든요. 길 찾기와 택시 부르는 법을 잘 배워서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안 해서 못 했던 거예요,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정오일 어르신 | 70대 수강생

카카오톡도 직접 배워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안 해봐서 못 했던 거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라운드 | 카카오뱅크

연극 속 도박, 내 이야기가 되기 전에

먼 일인 줄만 알았던 무대 위 이야기가 나와 친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카카오뱅크는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유혹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형 연극을 통해 경각심을 건넵니다.

제로라운드

카카오뱅크가 BTF푸른나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불법 도박 및 금융 피해 예방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의 일상 속 도박 유사 경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 도박 예방 가이드라인, 체험 연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도박 예방 가이드라인:** 청소년 스스로 도박 위험 징후를 알아채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 기준 제시
- **청소년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 도박에 빠질 위험도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제공해 경각심 형성
- **체험 연극:** 학생 참여형 요소가 포함된 뮤지컬 기반 도박 예방 체험 연극

IMPACT

불법 도박 및 금융 피해 예방 체험형 연극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6년

170개교 4만 명

불법 도박 및 금융 피해 예방 콘텐츠 배포

도박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

STORY

Interview. 이슬기 Photo. 백진선

주인공을 말리던 마음이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기를

이우승 | 연극배우

20년 동안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 섰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연을 준비하며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도박에 노출될 수 있는지 알게 됐죠.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라서, 배우로서뿐 아니라 한 아이의 부모로서도 이 공연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는 점도 새로웠어요. 공연 도중 갑자기 말을 걸어오거나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응하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소극적일 줄 알았던 아이들이 먼저 무대에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순간에 더 진지하게 집중하게 됐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박을 끊어내지 못한 주인공이 개인정보까지 넘기도록 내몰리던 순간, 객석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외침이에요.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통해 아이들이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도박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한두 명이라도 도박의 유혹을 마주할 때 이 공연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 학생이 "애초에 도박을 만드는 건 어른들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돌아보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박의 위험을 알려주러 갔지만, 저 역시 그곳에서 어른의 책임을 배운 거죠. 아이들이 주인공을 향해 외쳤던 "그러지 마!"가 언젠가 자신과 친구를 지키는 목소리가 되었으면 해요. 저도 아이들이 건넨 질문을 오래 기억하며, 앞으로의 무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싶어요. 공연은 끝나도,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이야기는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테크 NGO AI 클래스 | 카카오

좋은 세상을 앞당기는 활동가의 AI 배움

사람을 돕고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활동가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무의 부담을 줄이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비영리단체의 리더와
실무자가 함께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 적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카카오테크 NGO AI 클래스

카카오가 비영리단체의 AI 활용과 조직 내 확산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리더와 실무자가 2인 1조로 참여해 '내 업무 AX(입문)'와 '단체 업무 AX(심화)' 과정을 배우고, 실제 업무를 돕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듭니다. 교육 후에도 한 달간 카카오 임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리더 + 실무자 2인 1조:** 리더와 활동가가 함께 배워 조직에 자연스럽게 안착
- **기초 → 1주 → 심화:** 입문과정 수료 뒤 1주간 현업 적용, 심화과정에서 문제해결형 과제 수행
- **AI 분야 대표 강사:** 37만 유튜버 페이퍼로지 직강
- **AI 활용을 위한 피드백:** Claude Pro 1개월 이용료 지원 + 교육 뒤 강사 Q&A 채팅방 운영

IMPACT

참여 단체

아동 인권·환경·소비자·
장애인 권익·중간지원 조직 등

**10개 분야
53개 시민단체**

교육 후 AI 적용에 대한 생각 변화

'AI를 적용해 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에 대한 응답

**48.9%
→ 91.5%**
(응답률 89.5%)

교육 만족도

4.86점
(5점 만점, 응답률 92.2%)

참여 활동가

105명

STORY

반복되는 일은 AI와 나누고, 사람을 돕는 일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비영리 현장에서도 AI는 이미 익숙한 도구입니다. 2026년 4월, 저희 연구소가 비영리 종사자 302명을 조사했을 때 개인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93%에 달했지만, 조직이 공식적으로 AI를 도입한 비율은 27%에 머물렀습니다. 조직의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활용법을 익히는 활동가들이 많았던 것이죠. 개인의 배움을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줄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7월, 비영리 활동가를 위한 AI 교육을 준비하던 카카오가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 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과제를 함께 논의했고, 9월 '카카오테크 NGO AI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리더와 실무자가 2인 1조로 참여하는 방식이었어요. 실무자 혼자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이 함께 AI 활용의 기준과 방향을 고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첫날부터 반복되는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필요한 이슈를 살펴보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며 자신과 조직의 일하는 방식도 돌아봤습니다.

카카오는 교육이 끝난 뒤에도 한 달간 임직원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교육장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질문과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현장으로 돌아간 뒤에도 필요한 기능을 보완하고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속 지원은 배움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배움이 실제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도 사전·사후 조사와 참가자 인터뷰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반복 업무의 부담을 덜어낸 활동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돕는 일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마련한 배움의 기회가 조직 안에서 지식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비영리 현장의 본질을 지키는 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어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돌아보게 됐죠.

아이들에게 도박의 위험을 알려주러 갔지만,
저 역시 그곳에서 어른의 책임을 배운 셈이죠.

이우승 | 연극배우



카카오가 마련한 AI 교육을 계기로 반복 업무의
부담을 덜어낸 활동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을 돕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같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어쩌면 '기다려주는 일'인지도 몰라요.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가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알려드리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우러 오신 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허수정 | 시니어 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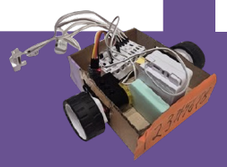


성장,
배움을 내일의 역량으로
이어가는 경험

- 9시간의 몰입, 발견해 낸 가능성 랄프톤
- 비수도권 기술교육 격차, 루키 캠프로 격파! AI 루키 캠프
-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코드 모두의 AI 코딩 LAB
- 찾습니다! AI 시대의 문제 해결자 AI_TOP_100
- 지역에서 '좋은' 개발자 난다! 카카오테크 캠퍼스

성장의 기술













랄프톤 | 카카오

9시간의 몰입, 발견해 낸 가능성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작동하는 서비스가 되기까지, AI로 만들고 동료·멘토와 함께 다듬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카카오 AI 돛 랄프톤에서 지역 인재들은 상상을 직접 구현하고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합니다.

랄프톤

부산에서 개최된 '카카오 AI 돛 서밋 26'의 AI 에이전트 해커톤으로, 기술을 활용해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서비스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9시간 동안 AI 개발 도구로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을 만들고, 현장 멘토링을 통해 기능과 사용자 경험, 서비스 운영 방안을 다듬습니다.



- **교육에서 현장으로:** 사전 온라인 교육을 통해 도구와 제품 개발 방식을 미리 익힌 뒤 팀의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
- **만들고 다시 질문하기:** 에이전트의 첫 결과를 멘토와 살펴보고, 피드백을 다음 실행에 반영
- **작은 제품으로 설명:** 일시적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데모까지 구현해 하루의 작업을 유의미한 형태로 정리

IMPACT

랄프톤

4대 과학기술원 학생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 고등학생 등

60여 명 참여

카카오 AI 돛 서밋

지역 AI 인재·창업가 등

약 800명 참여

'일단 만들어보는 사람'에서 '잘 만드는 사람'으로의 성장

김건영·송범준 | 부산과학고등학교 학생



저희는 교내 정보 동아리 'BIT'에서 만난 친구 사이예요. 후배 승빈이까지 셋이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대회에도 함께 나가죠. 평소에도 만들고 싶은 걸 이야기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직접 만들어봐요. 이번 랄프톤에서 만든 러닝 게임 'STRIDE'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건영이가 살을 빼려고 러닝을 시작했는데, 달리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음성 미션을 수행하며 다른 러너와 대결하거나 몬스터와 싸울 수 있는 러닝 게임을 만들었죠.

사실 대회 준비를 많이 못 해서 그냥 재미있게 놀다 오자고 했어요. 기본적인 작동 방식만 준비해 가서 현장에서 AI 도구로 개발하고, 디자인을 적용하고, 멘토분들께 피드백을 받으며 계속 수정했어요. 저희는 게임이 재미있게 작동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이후 운영까지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게임 속 가상 재화에 대한 조언을 듣고, 나중에는 러닝 챌린지나 마라톤 행사를 열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얻었어요.



상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끝나자마자 집에 가려고 가방도 다 싼 상태였어요. 그런데 1등으로 불려서 참가자들 앞에서 시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장난으로 넣어둔 노래와 닉네임까지 공개되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날 사진을 보면 저희 셋 다 안 웃고 있어요. 너무 놀라고 긴장해서요.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일단 AI와 함께 해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원래는 구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사람도 즐겁고 편리하게 쓰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게 됐고요. 실제로 틈틈이 STRIDE를 보완하며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랄프톤에서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보자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일까요? 친구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더 나아'라고 말하기보다 일단 해보라고, 응원해 주고 싶어요.

미래기술인재

AI 루키 캠프 | 카카오

비수도권 기술교육 격차, 루키 캠프로 격파!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한 사람들이 만듭니다. 지역이 한계가 되지 않도록, 카카오는 비수도권 청소년들이 AI를 배우고 도전할 기회를 펼칩니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멘토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경험 속에서 지역의 기술 꿈나무가 자라납니다.

AI 루키 캠프

카카오가 비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AI 캠프입니다. 참가 학생들은 3박 4일 동안 문제 정의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사회 문제를 탐색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팀별로 AI를 적용한 장치와 웹·앱 서비스를 구현하며, 문제 정의부터 결과물 완성까지 AI 엔지니어링의 전 과정을 경험합니다.

- **Day 1. ENTER:** 문제의 발견 & 피지컬 도구 이해
- **Day 2. DEFINE:** 진로 비저닝 & 개발 역량 강화
- **Day 3. BUILD:** 프로젝트 집중 개발
- **Day 4. UNPACK:** 성과 공유 & 미래 비저닝

IMPACT

비수도권 청소년 참가자

비수도권 청소년
197명 참여

피지컬 AI 프로젝트
40개 완성

핵심 역량 자기평가

교육 전 대비
평균 9.9점 상승

캠프 만족도

학생
평균 4.8점

학부모
평균 4.9점
(5점 만점)

STORY

아이들 가슴에는 '확신'을 부모님 마음에는 '믿음'을 심었어요



AI 때문에 접었던 꿈을, 루키 캠프에서 다시 찾았어요

신준서 | 경남 김해서중학교 학생

AI가 발전하면서 개발자의 미래가 어둡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IT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그런데 캠프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다시 열정과 흥미가 생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하나씩 이루다 보니 '내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고,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 같아요!

조하윤 | 제주 NLCS 학생

기술은 꼭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프로젝트도 결국 서로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AI가 대신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그런 소통과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함께 고민하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가장 사람다운 일이고, 하나의 예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아이들이 놀라웠어요!

곽지수 | AI 루키 캠프 참여자 학부모

보이스피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부터 태양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아이디어까지, 아이들이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해 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상용화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상상이 기술을 만나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비수도권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기술인재

모두의 AI 코딩 LAB | 카카오뱅크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코드

정답을 외우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AI도, 코딩도 배우지만 카카오뱅크가 진심으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건, 기술을 삶의 문제와 연결시켜 직접 해결해 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모두의 AI 코딩 LAB

카카오뱅크가 함께하는 청소년 AI 코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진 답을 외우는 대신 아이들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AI와 코딩을 학습합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생활 속 금융·경제 문제를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으로 탐구하며 스스로 솔루션을 발견하는 실전형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1회차
AI와 생성형 AI
첫 만남

2회차
생성형 AI로
금융 생활 똑똑하게

3회차
바이브 코딩
첫 체험 - Canvas

4회차
바이브 코딩으로
용돈 관리 앱 만들기

5회차
나만의 소비 습관
분석 서비스 만들기

6회차
프롬프트로
정교하게 조각하기

7회차
AI 챗봇이 살아있는
웹·앱

8회차
나만의 AI 금융 서비스
만들기

IMPACT

참여 학교
전국 135개교

참여 학생
3,818명

STORY

내 용돈의 행방, 내가 만든 앱으로 한눈에!

전주만성중학교 학생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로 용돈 관리 서비스가 실행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특히 수입과 지출이 달력에 표시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 생각한 대로 완성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항상 용돈이 부족해서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돼요!



바이브 코딩, 너무 재밌는 거 아닌가요?

전주만성중학교 학생

제가 쓴 프롬프트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AI와 대화하며 프롬프트를 계속 고쳐나가다 보니, 점점 제가 원하던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번에 배운 바이브 코딩으로 다음에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려두고 어디서든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평소 학교 수행평가 자료를 집 컴퓨터로 옮길 때 메일을 써야 해서 불편했거든요.

학교로 찾아가는 AI 코딩 교육이 아이들의 내일을 바꿉니다

IBA(임팩트비즈니스재단) 담당자

'모두의 AI 코딩 LAB'의 가장 큰 강점은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실전형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프롬프트를 다듬고 직접 결과물을 구동해 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AI를 일상 속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나만의 도구로 자연스럽게 체화해 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찾습니다!
AI 시대의 문제 해결자

AI를 잘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보다 AI 시대에 필요한 문제 정의와 해결 방식에 주목해 국내 최초 AI 활용 역량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술의 현재를 만끽하는 것으로, 기술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AI_TOP_100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AI를 활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기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이 일상과 업무에서 마주할 법한 과제를 풀어내며 AI 활용 역량을 겨루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탐색합니다.

- **DISCOVER:** 역량을 갖춘 미래 기술 인재 발굴
- **DEFINE:** 새 시대에 맞는 '잘 쓴다', AI 활용 능력의 기준을 제시
- **SPREAD:** AI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문화의 확산
- 테크 업계 종사자, 자영업자, 소방관, 농부, 변호사, 학생 등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참여해 'AI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

IMPACT

AI_TOP_100

참가자 연령
15~67세

참가 인원
누적 1만 1천 명
(오픈 당일 신청 마감)

AI_TOP_100 Campus

테크 관련 비전공자
55%

비수도권
40%

Interview. 송모연 Photo. 정찬웅

AI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것, 결국 사람

설동헌 | AI_TOP_100 특별상 수상자



공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내 몸이 두 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대 근무 틈틈이 컴퓨터를 공부하다가, 반복되는 간단한 민원을 도울 챗봇을 만들었죠. 바로 현장에 도입되지는 못했지만, 제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었다는 보람이 컸어요. 다만 혼자 공부하다 보니 제가 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AI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카카오임팩트의 AI_TOP_100은 그 궁금증을 풀어볼 기회였어요. 현실에 있을 법한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대회였거든요. 저는 AI 에이전트가 이미지를 확인하고 개선해 반복 제출하도록 설계했고, 가장 많은 답안을 제출해 특별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많이 시도한다고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참가자들의 방식을 보며, 결국 AI의 결과를 검토하는 '사람'이 핵심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AI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강사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누구나 아는 카카오·카카오임팩트에서 개최한 AI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력이 신뢰의 증표가 되어주는 요즘입니다. 기업과 청년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도록 도우면서, 코딩을 모르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도 되겠네요"라고 하실 때면, 서로의 마음에 효능감이 생기는 걸 느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에게도 기술을 연결해 드리고 싶어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가격표를 손으로 쓰시는 걸 보며, 이런 일을 AI로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게 어색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일이 좋아서 나 자신을 가다듬는 것. 제가 생각하는 같이도생이에요.

미래기술인재

카카오테크 캠퍼스 | 카카오

지역에서 ‘좋은’ 개발자 난다!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론 학습을 넘어, 동료와 생각을 나누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는 지역 청년과 현업을 연결해,
배운 기술이 함께 일하는 실력으로 자라도록 돕습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

기초 학습부터 서비스 구현, 실전 프로젝트까지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는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현업 개발자의 지속적인 코드 리뷰와 기술 멘토링을 통해 구현 방식과 기술적 판단을 점검하고, 동료와 함께 서비스를 완성하며 협업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STEP 1.
웹 개발 기초 교육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 기술 스택 학습

STEP 2.
카카오 AI 서비스
클론 코딩
상용 AI 애플리케이션
클로닝을 통한 서비스
구현 실습

STEP 3.
나만의 AI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아이디어 기획부터
개발 및 배포까지
실전 프로젝트 경험

IMPACT

참여 지역 및 대학

**5개 지역,
5개 거점 국립대**

1~4기 누적 수료생 및 개발 서비스

561명 · 92개

카카오 현직자 참여 규모

멘토 66명,
강사 15명
연간 80여 명

취업 도움도
1~3기 수료생 중 취업자 대상 설문

89%

Interview. 김지아 Photo. 홍태식

개발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일

신세환 | 카카오 톡Windows팀 개발자

안녕하세요. 카카오 톡Windows팀에서 PC 카카오톡의 기능을 개선하는 개발자 신세환입니다. 고등학생 때 동아리에서 시연할 게임을 직접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며 개발자의 꿈을 키웠어요. 대학에 와서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필요한 지식은 어떻게 쌓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지역에서는 현업에 있는 선배들에게 제 작업을 꾸준히 보여주고 조언을 구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친구에게 카카오테크 캠퍼스(이하 카테캠)를 소개받고, 제가 만든 것에 대해 현실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어 지원했어요.

카테캠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코드가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직접 구현하고 멘토에게 리뷰를 받으며 생각이 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왜 이렇게 구현했나요?”라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의도로 코드를 작성했는지 돌아보고, 놓친 부분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전에 ‘왜 필요할까, 무엇을 위해 만드는 걸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게 가장 발전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멘토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분들과 언젠가 동료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카카오 공채가 열려 지원했고,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날에도 카테캠 동기들과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죠. 입사 후 첫 작업에서 동료들이 남겨준 리뷰를 읽고 코드를 고치는데, 카테캠에서 열심히 배우던 순간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학생일 땐 개발자가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해보니, 팀원들과 협업하기 위해 제가 만든 코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개발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 제 일을 유심히 보고 의견을 건네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기에, 저도 동료들의 일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려고 해요. 누군가가 저를 이끌어주었던 기억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동료가 되고 싶어요.



학생일 땐 개발자가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해보니, 팀원들과 협업하기 위해
제가 만든 코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신세환 | 카카오 톡Windows팀 개발자



막연히 '어떤 앱을 만들어야지'
'이런 걸 공부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AI 루키 캠프에 와서 문제를 직접 생각해
보고 개발해 볼 기회까지 얻었어요.

전우진 | 세종 종촌중학교 학생



랄프톤에서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보자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일까요?

친구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더 나아'라고 말하기보다
일단 해보라고, 응원해 주고 싶어요.

김건영·송범준 | 부산과학고등학교 학생

실천,
지구의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선택

음악을 들으면 자라나는 숲 숲;트리밍

작은 생명을 향한 관심이 함께 지켜갈 의지로 에코실험실·에코임팩트

새활용이라는 멋진 말 새가버치

기후위기라는 질문에 기술로 답합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환경을 지키는 우리의 실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숲;트리밍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을 들으면 자라나는 숲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응원하는 일상이 환경을 위한
푸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참여에 힘을 보태
도심 속 작은 숲을 가꿉니다.

숲;트리밍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 멜론과 서울환경연합이 힘을 모아 음악 감상을 숲 조성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캠페인입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면 숲 조성 기금이 적립되고, 멜론이 기부금을 보태 서울 곳곳에 아티스트의 이름을 딴 작은 숲을 조성합니다.

- 방탄소년단 숲
- NCT 숲
- aespa 숲
- AKMU (악뮤) 숲
- 세븐틴 (SEVENTEEN) 숲
- EXO 숲
- 윤하 (YOUNHA) 숲
- BLACKPINK 숲
- 임영웅 숲
- i-dle (아이들) 숲
- 영탁 숲
- 이찬원 숲
- BIGBANG (빅뱅) 숲
- SHINee (샤이니) 숲
- 투모로우 바이투게더 숲

IMPACT

참여자

약 13만 명

숲;트리밍을 통해 심은 나무

1.3만 그루

아티스트 숲 조성

25개

숲;트리밍으로 조성된 숲이 흡수할 탄소

연간 약 279톤

승용차 100대가 1년 내내 운행하며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

STORY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평범한 일상을 환경을 위한 실천으로 바꾸는 플랫폼

조윤환 | 서울환경연합 모금팀장

처음 숲;트리밍을 제안받았을 때, 음악을 듣고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일상이 환경을 위한 실천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익숙한 문화 안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자신의 응원이 눈에 보이는 숲으로 이어진다면 젊은 세대도 환경 문제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숲은 나무를 심는 순간 완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돌보는 동안 사람들의 일상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난지한강공원의 방탄소년단 숲은 한 팬의 운동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손녀딸이 함께 아티스트의 숲을 둘러보며 '최애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누구나 쉬어 가는 도시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열기를 낮추며, 새와 곤충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숲이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다시 환경을 위한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제가 바라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에는 이렇게 개인의 작은 마음과 행동을 연결하고, 더 큰 변화로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멜론 숲;트리밍이 문화를 즐기며 지구를 돌보는 실천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오래도록 푸른 숲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에코실험실·에코임팩트 | 카카오뱅크

작은 생명을 향한 관심이 함께 지켜갈 의지로

생명을 지키려는 작은 관심이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시민의 환경 아이디어가 현장의 실험을 거쳐 유의미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시도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에코실험실 ·에코임팩트

카카오뱅크와 숲과나눔이 함께 시민들의 환경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코실험실'은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실험하도록 돕고, 후속 사업인 '에코임팩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 **에코실험실:** 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고자 하는 청년 모임 지원
- **에코임팩트:** 에코실험실 참여팀 중 기존 활동을 확장·사업화·정책화하고자 하는 모임 지원
- **주제:** 기후 변화, 자원 순환, 환경 교육, 생물 다양성



IMPACT

사업 기간	에코실험실 참가 팀
2024~2026년	총 3기 · 86팀



STORY

Interview. 김지아 Photo. 백진선

안녕, 표범장지뱀! 너를 지킬 우리가 생겼어

전인정 | 구미생태조사단 단장

안녕하세요, 구미생태조사단을 이끄는 전인정입니다. 낙동강과 습지를 오가며 생물들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라지는지 기록해요. 특히 구미 낙동강변과 강정습지의 표범장지뱀을 지켜보고 있어요. 4대강 사업 이후 구미의 모래톱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아직 여기 살아있다는 것,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초기에는 사비를 들여 혼자 조사하고 생물을 구조했어요. 처음 카카오뱅크 에코실험실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뒤에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고 생각했죠. 낙동강 전체를 바꾸려는 생각 대신 눈앞의 로드킬이나 수로 고립 문제 먼저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어요. 그렇게 2025년 다시 에코실험실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문가, 시민과 함께 조사도 하고 워크숍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문을 받아 로드킬 예방 표지판도 설치했죠. 혼자서는 한계에 부딪히면 멈춰야 했던 일들이 여러 사람의 지식과 목소리를 만나니 극복하며 나아가는 쪽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모을 때도, 가까운 것부터 시작했어요. 새들의 유리창 충돌 문제를 알리고, 함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였죠. 이후 "낙동강에서 표범장지뱀도 보자"고 하니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이제는 먼저 "새가 충돌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연락을 주세요. 작게라도 무언가를 바꿔본 경험이 다음 참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은 시민이 '나도 할 수 있구나'를 경험하도록 돕고 싶어요.

지금은 에코임팩트의 '표범장지뱀 세이버' 활동으로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조사해, 서식지 관리 방안과 보전 정책까지 제안하려고 해요. 수로에 빠진 생물이 스스로 나올 탈출구를 설치하는 것도 목표예요. 좋은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생명들도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같이 잘 산다는 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주변의 작은 생명 앞에 잠시 멈추어, '너는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니?'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좋겠어요.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새가버치 카카오

새활용이라는 멋진 말

다 마신 종이팩이 아이들의 스케치북으로, 버려진 현수막이 배움의 공간으로 변신하며 새 가치를 전합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자원순환과 나눔으로 연결해 새활용이 당연한 지구의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새가버치

카카오메이커스 새가버치는 쓰임을 다한 물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 헌 의류와 종이팩, 커피캡슐 등을 수거해 새로운 쓰임을 찾고, 완성된 제품이나 판매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합니다. 특히, 종이팩을 집 앞에서 수거하는 '일상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상 프로젝트:** 이용자들이 씻고 말려 보낸 종이팩을 한솔제지와 함께 스케치북으로 제작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 **톡톡배움터:** 에코씨드 기금을 활용해 폐현수막으로 학습용 가구를 제작하고, 아동복지기관에 새로운 배움의 공간 조성



IMPACT

새로운 가치를 찾은 물건
2026년 10월 기준

약 2천만 개

지금까지 함께한 새활용 크루
2026년 10월 기준

약 15.4만 명

STORY

일상 프로젝트

버려진 종이팩이 아이들을 위한 스케치북으로!



올겨울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삼매경에 빠질 것 같네요.
아이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자료로도 훌륭합니다.
소중한 선물 보내주신 카카오메이커스, 감사합니다.

중촌공립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몸소 교훈을 준 것 같아 참여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멸균팩 택배를 보내고 난 뒤인데도
아이들이 스스로 멸균팩을 분해하고 펼쳐서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j***님 | 새가버치 참여자

톡톡배움터

폐현수막이 단 하나뿐인 학습 공간으로!



재개발로 인해 신축 건물로 이전했지만,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을 꾸밀 엄두를 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카카오메이커스 새가버치는 한 줄기 빛 같은 기회였습니다. 새 공간에 배치된 가구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그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였어요!

정해자 | 포항 양학지역아동센터 대표

단순히 버려진 폐현수막을 다시 쓰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앉고 쓰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태호 | 카카오메이커스 수석

여러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특성상 학습 몰입도가 떨어지는 환경이 불가피했는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학습 전용 보금자리를 갖게 되어 아이들과 교사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이남용 |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팀장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 카카오임팩트

기후위기라는 질문에 기술로 답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기술이 세상을 바꾸려면, 그 가능성을 키울 투자와 현장에 적용할 기회,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필요합니다. 카카오임팩트는 작은 팀의 도전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 산업과 정책을 잇는 협력의 기반을 넓혀갑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는 2022년부터 매년, 제주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해 왔습니다. 창업가·투자자·기업·정책 담당자·연구자가 사흘간 모여 기술과 산업의 동향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조발제와 대담, 스타트업 발표, 주제별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와 협업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발표 중심이 아닌 참여형 관계 형성:** 모든 참가자가 발언권을 가지고 논의의 주체로 참여
- **기후기술·AI·에너지 전환의 연결:** 기후테크와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연속된 시스템으로 사고
- **논의로 끝나지 않는 설계:** 지식 공유를 넘어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
- **큐레이티드 커뮤니티:** 스타트업·투자자·정책 담당자·산업 리더를 연결해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 협력을 도모

IMPACT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누적 참여자
583명

참여 조직
420개

임팩트 클라이밋 네트워크

누적 참여자
3,281명

참여 스타트업
435개

참여 기관(투자사·대학·미디어·공공기관)
1,113개

STORY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곧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길입니다

이학영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일하다 보면 현장을 자주 찾게 됩니다. 법 조문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도 그런 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2025년 처음 제주를 찾았고, 올해로 두 해째 함께하며 느낀 것은,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폐열을 저장하는 열배터리, 화석연료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꾸는 구독 모델,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흔들리는 전력망을 잡는 기술까지, 창업가들은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앞에 투자자와 공기업, 정부와 지자체가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낡은 규제와 부족한 전력 인프라, 첫 설비를 세워 입증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좁기만 한 자본의 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필요한 감축의 80%가 이미 있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일지 모릅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가진 사람,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결국 실험실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해 서밋에서 들은 이 말을 오래 기억하려 합니다. "좋은 정책과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이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주체가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전 세계 기후테크 투자액은 1년 사이 절반 넘게 늘었지만, 투자 건수는 5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돈은 커졌지만 문은 좁아졌습니다. 이럴수록 작은 팀이 투자자와 산업, 정책 담당자를 만날 자리가 필요합니다. 첫해 60명으로 시작한 서밋에는 다섯 해 동안 420여 기관, 580여 명이 함께했고, 올해는 11개 기관이 2027년 '한국기후위크' 출범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탄소를 직접 줄이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민간이 먼저 낸 이 길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도 현장에서 들은 과제를 국회로 가져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다섯 해 제주에 모인 전문가들과 그 자리를 지켜온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섯 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비를 들여
혼자 조사하고 생물을 구조했어요.

혼자서는 한계에 부딪히면 멈췄던 일이
여러 사람의 지식과 목소리를 만나니 극복하며
나아가는 쪽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인정 | 구미생태조사단 단장



아이들이 생활할 공간을 꾸밀 엄두를 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카카오메이커스 새가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새 공간에 배치된 가구들은 아이들의 삶 그 자체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였어요!

정해자 | 포항 양학지역아동센터 대표



난지한강공원의 방탄소년단 숲은 한 팬의 운동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손녀딸이 함께 아티스트의 숲을 둘러보며
'최애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 곁에 오래도록 푸른 숲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조윤환 | 서울환경연합 모금팀장



공존,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갈 자리

노트북 속 로봇이 '진짜' 현장의 로봇으로 안산 지역협력
제주 지역 문제, 같이 풀어보게마씸! 제주 임팩트 챌린지
'장벽 없는'이라는 말조차 불필요한 일상 모두를 위한 접근성
문화의 즐거움에 서로 다른 방식은 없으니까!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기부는 이렇게 일상이 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진심과 기브셔틀만 있다면 누구든 봉사할 수 있어! 기브셔틀









공존,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갈 자리











안산 지역협력 | 카카오

노트북 속 로봇이 ‘진짜’ 현장의 로봇으로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누군가의 일을 돕고, 그 경험이 다음 도전을 향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도록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현장과 실무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이 기술의 쓸모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안산 지역협력

카카오는 한양대학교 ERICA 로봇공학과와 기업 연계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현장 방문과 실무자 멘토링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실제 운영 과제를 해결하는 로봇을 개발하며 실무 경험을 쌓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로봇 인재를 양성합니다.

- **산학협력 주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운영 효율화와 보안 강화를 위해 무인 점검 로봇 시스템 공동 연구·개발
- **참여 규모:** 한양대 ERICA 로봇공학과 8개 팀, 학생 30명(1년간 참여)
- **주요 결과물:** 자산 실사 자동화, 외곽 순찰·물리 보안, 현장 안전을 위한 로봇·솔루션

IMPACT

완성률

8개 팀 전원 실물 로봇 프로토타입 완성

100%

주요 결과물

자산실사 3종, 순찰·보안 3종, 안전 2종

실물 로봇 · 솔루션 8종

STORY

Interview. 송모연 Photo. 정찬웅

저희 로봇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뿌듯했죠

김영성·강범진 | 한양대학교 ERICA 로봇공학과 학생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ERICA 로봇공학과 4학년 김영성, 강범진입니다. 저희는 둘 다 아이언맨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로봇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함께한 기업 연계 캡스톤 프로젝트 덕분에 다른 두 명의 팀원과 저희의 첫 로봇 ‘올스캔(Owl Scan)’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스캔은 부엉이를 뜻하는 ‘Owl’과 모든 서버를 스캔한다는 ‘All Scan’의 의미를 함께 담은 이름이에요. 부엉이를 닮은 얼굴을 하고 데이터센터 서버실을 돌아다니며, 서버가 정해진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로봇이죠. 이번 산학협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실제 고민을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는 프로젝트였어요. 자산 실사 자동화와 물리 보안, 안전 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 가운데 저희는 자산 실사를 선택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하면 되는 일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서버실에 들어가 보니 서버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서버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을 로봇이 맡으면, 담당자분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카카오 실무자분들과 매달 만나면서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갔어요. 처음에는 스캐너를 리프트로 올리고 내리도록 설계했는데, 담당자분들이 끼이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짚어주셨죠. 그래서 스캐너가 위아래로 각도를 바꾸며 정보를 읽는 구조로 다시 만들었어요. 로봇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켜고 끌 수 있도록 전원 버튼도 밖에 두었고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 후속 과제를 제안받았을 때는 ‘우리 로봇이 정말 쓰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희가 만든 로봇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놀라우면서도 뿌듯했죠.

시연 전날 갑자기 로봇이 움직이지 않아 다 같이 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 날 무사히 시연을 마쳤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각자 잘하는 일로 힘을 보탰던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올스캔도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에게 ‘같이 잘 산다’는 건 그렇게 마음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며, 다음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사회적 약자 지원회

제주 임팩트 챌린지 | 카카오

제주 지역 문제, 같이 풀어보게마씸!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직접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할 때, 변화는 더 오래 이어집니다. 카카오는 제주도민이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움과 실행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제주 임팩트 챌린지

제주도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챌린저 트랙'과 지역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확장하는 '플레이어 트랙'으로 운영합니다. 환경·문화·안전·교육·경제·청년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주에 필요한 변화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 **챌린저 트랙:** 지역 문제 해결에 처음 도전하는 팀의 아이디어 구체화와 프로젝트 실행 지원
- **플레이어 트랙:** 기존 활동 경험을 가진 팀이 프로젝트를 구체화·고도화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 환경·문화·안전·교육·경제·청년 커뮤니티 등 제주 현장의 문제를 당사자인 도민 주도로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IMPACT

프로젝트와 함께한 제주도민
2026년 기준

참여 및 수혜
2,174명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78개

1~6기 제주 임팩트 챌린지 프로그램 직접 참여자

360명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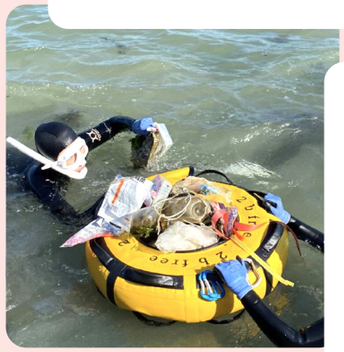
제주도민이 직접 만든 제주의 즐거운 변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제주 바다

표선고등학교 인권동아리, 이끼

누구나 제주 바다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제 프로젝트로 펼쳐, 행동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용 휠체어와 진입 매트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패들보드 체험과 무장애 해수욕장 축제를 열었어요. 이제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 누구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협력하며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제주 바다를 위한 쓰레기 수거 길잡이

디프다제주

제주 임팩트 챌린지는 바쁘게 현장을 누비던 저희가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집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쓰레기를 직접 줍는 데서 나아가 누구나 수거와 처리 과정을 알고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다크투어와 안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후 카카오의 후속 지원으로 폐현수막을 수거용 마대로 재활용하고 차귀도 정화 활동까지 이어갔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바다도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는 요즘,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준 카카오, 고맙습니다!

사라지는 제주어를 놀이로 이어갑니다

헤삭이탐라

소멸되어 가는 제주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보드게임과 굿즈, 체험 교육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익히는 '탐탐판놀이'는 학교와 마을을 넘어 학술연구 교구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제주어로 인사하고,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제주어로 말을 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펼쳐볼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접근성 | 카카오

‘장벽 없는’이라는 말조차 불필요한 일상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달력에 소중한 약속을 표시하는 일. 이 평범한 순간을 누구나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카카오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꾸준히 점검합니다. 불편을 겪는 당사자들과 함께 소중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의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당사자로 구성된 서포터즈의 의견을 실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합니다. 점자와 촉각 디자인을 적용한 카카오 점자달력, 자막·화면해설을 더한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등 서비스와 일상, 문화까지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어갑니다.

- **접근성 실태조사:** 주요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 점검 및 개선점 도출
- **접근성 서포터즈:** 장애 당사자의 일상 속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사항 발굴
- **카카오 점자달력:** 점자·큰 글씨·촉각 그림·스티커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이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을 직접 관리
-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자막·화면해설 등을 적용해 누구나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경험 확대

IMPACT

접근성 테스트 평균 점수
2025년 기준

91.2점

접근성 실태조사

주요 서비스 44개 연 2회 실시

개선사항 도출
2023~2026년 상반기

1만 8,705건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누적 130명

STORY

장벽은 낮아지고, 일상은 넓어지도록

내 작은 목소리로 만드는 모두의 변화



김화연·도성미 | 카카오 접근성 서포터즈

제 생각이 분명해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건 두려웠어요. 그런데 접근성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제가 전한 불편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되는 걸 보니 ‘내 목소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작은 의견 하나가 같은 불편을 겪는 누군가의 하루까지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도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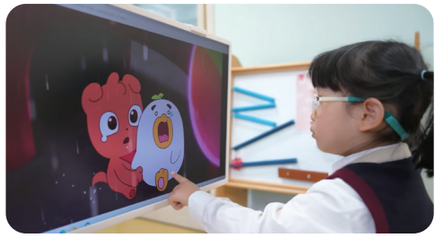
내년 엄마 생일은 꼭 내가 챙겨줄게!

강태윤 | 부산맹학교 학생

날짜가 궁금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해서 불편했는데, 학교에서 받은 카카오 점자달력 덕분에 1년을 훤히 볼 수 있어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도 있고, 스티커도 있어서 중요한 날에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내년 엄마 생일은 꼭 제가 챙겨드리려고요!

© 시각장애어린이 태윤 유튜브





소외를 모르는 이야기, 함께 웃는 즐거움

인송이·정은진 | 서울효정학교 교사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소리로 접하다 보니 효과음만으로는 어떤 장면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기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는 목소리가 더해지면 다른 친구들과 같은 이야기를 온전히 즐길 수 있죠. 어린 시절의 문화적 경험 차이는 자라면서 더 커질 수 있기에,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함께 보며 웃고 즐기는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즐거움에 서로 다른 방식은 없으니까!

서로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도, 문화가 전하는 즐거움과 감동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농인과 콘텐츠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해, 브랜드 수어와 웹툰을 만들고, 카카오와 함께 수어문화제에 참여하며 문화의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이어갑니다.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농인들에게 카카오페이지 기프트카드를 지원하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카카오와 함께 서울수어문화제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수어와 농인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갑니다. 브랜드 수어 공모전과 수어 웹툰 공모전, 웹툰 전시 등을 통해 농인과 청인이 함께 창작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콘텐츠 이용 지원:** 농인·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카카오페이지 기프트카드 지원, 웹툰·웹소설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 **서울수어문화제:** 수어 배우기·웹툰 전시·수어네컷 등 프로그램으로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즐기고 이해하는 장 마련
- **브랜드 수어 공모전:** 농인과 함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지·멜론·베리즈의 공식 수어 브랜드명을 공모하고 채택

IMPACT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프트카드 후원

1억 9천만 원 상당

2026년 서울수어문화제와 함께한 분들

3만 4천여 명

우리의 언어와 문화로 함께 만드는 축제

김정환 | 서울농아인협회 회장



안녕하세요. 서울농아인협회 회장 김정환입니다. 서울수어문화제는 농인과 청인이 수어로 만나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자리예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 등의 브랜드 수어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된 순간이에요. 브랜드를 나타내는 수어가 없으면 긴 이름을 지문자로 하나하나 표현해야 하거든요. 농인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의 공식 수어를 만드는 것은 국내 기업 최초의 시도이자, 농인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농인을 단순한 수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와 함께하는 동반자로 다가왔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농인들의 마음에 큰 용기와 신뢰를 심어주었고, 든든한 자부심마저 일깨워 주셨습니다.

콘텐츠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수어와 농문화를 알리는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행이 농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차별 없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이는 소통,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순간

강여름 | 웹툰 〈RAINBOW〉 작가

처음 수어 웹툰 제작 제안을 주셨을 때, 문자와 그림 즉 웹툰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보이는 언어'라는 점에서 수어와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어라는 낯선 언어를 웹툰이라는 친근한 매체로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어 웹툰 제작에 참여하게 됐어요. 수어 웹툰에는 〈RAINBOW〉 속 '무지개 섬'에 사는 아이들이 등장해요.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각자의 색으로 빛나는 아이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지의 공식 수어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작업하는 내내 눈빛과 표정, 몸짓과 손짓까지 마음을 전하는 언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웹툰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 즐길 수 있잖아요. 저의 언어인 그림으로 말을 건네고, 독자들이 그 안에서 또 다른 언어를 만나는 것처럼, 콘텐츠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깝게 만드는 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카카오같이가치 | 카카오

기부는 이렇게 일상이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시작하는 나눔이 매달 이어져, 기부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날까지. 카카오는 기부자에게는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만드는 보람을, 비영리기관에는 내일의 활동을 이어갈 힘을 선물하며 새로운 기부 문화를 열어갑니다.

카카오 같이가치

카카오가 운영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현장 단체에 연결합니다. '매달기부'를 통해 꾸준한 후원이 이어지도록 돕고, 파트너기관이 활동을 지속할 기반을 넓힙니다. 긴급모금과 계절별 캠페인으로 재난은 물론 일상 속 갑작스러운 어려움에도 '같이' 대응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 **매달기부:** 관심 있는 주제에 월 3,000원부터 정기 후원, 카카오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해 기부금 전액을 단체에 전달
- **긴급모금:** 산불·호우·지진·태풍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모금을 통해 긴급구호와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발 빠르게 지원
- **캠페인:** 겨울철 연탄 나눔과 여름철 폭염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연결하며 캠페인 추진

IMPACT

이용자와 카카오가 함께 누적한 기부액	같이기부 이용자 기부 건수
1,087억 원	7,500만 건
공익 프로젝트	**매달기부 건수**
2.2만 건	63만 건

STORY

좋은 일을 '같이'할 때, 더 커지는 '가치'

새해가 덜 무서워졌어요!

안무서운회사

안무서운회사는 은둔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모여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어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공공사업이 쉬는 연초마다 '올해도 버틸 수 있을까' 무서웠죠. 카카오임팩트의 찐팬 프로젝트를 거쳐 같이가치 매달기부로 연결되면서, 이제 새해가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매달 이어지는 후원자님들의 기부가 저희 활동을 지탱해 주고 있거든요. 그 든든한 마음에 기대어, 저희도 더 많은 청년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재난 앞에서, 함께라는 걸 실감합니다

희망브리지

카카오같이가치는 방송과 신문, 전화 중심이던 재난 기부를 모바일과 젊은 세대의 일상으로 넓혀주었습니다. 2025년 영남권 산불 때는 나흘 만에 120만 명 넘는 분들이 함께했죠. 같이가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쌓이는 응원을 보며, 재난을 겪은 이웃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긴급구호부터 재난의 예방과 회복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여러분의 마음, 저희가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절마다 전하는 안부가 이웃을 지키는 힘으로

밥상공동체복지재단

기후위기는 취약한 이웃의 삶을 먼저 위협합니다. 카카오같이가치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냉방 없이 여름을 견디는 이웃의 사정을 더 많은 시민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겨울 연탄 나눔부터 여름 폭염 예방까지 함께하며, 에너지빈곤이 사계절 살펴야 할 문제임을 알렸죠.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활용해 폭염의 위험과 예방 수칙을 전하고, 나눔 이후의 변화도 후원자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관심이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과 안전한 여름이 되는 순간을, 저희는 현장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연에, 수많은 이웃이 응답합니다

사랑의열매

카카오같이가치와 함께한 10년 동안, 수많은 이웃의 사연에 시민들이 마음을 보태주셨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한 끼, 희귀난치질환 아동의 치료비,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일까지. 카카오가 열어준 나눔의 장에서 한 사람의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돌봐야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인 마음을 현장에 전할 때마다, 이웃을 돕고 싶어 하는 이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힘을 얻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역사회

기브셔틀 | 카카오모빌리티

진심과 기브셔틀만 있다면 누구든 봉사할 수 있어!

봉사하러 가는 길은 더 편하게, 경험을 통해 얻는 배움은 든든하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의 편리함에 봉사와 배움의 즐거움을 더해,
봉사 접근성과 실천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나눔과 배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봉사 문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기브셔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해 기획한 'GIVE & GET' 콘셉트의 봉사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봉사로 세상에 힘을 보태고(GIVE), 나눔의 보람과 함께 전문가 강연, 친환경 굿즈·간식 등 즐거운 경험을 얻습니다(GET). 카카오 T 앱에서 봉사활동과 셔틀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 지킴이 되기:** 최태성 강사의 역사 강연과 유생 체험, 유적지 정화활동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에 동참
- **농촌 일손 돕기:** 농부의 강연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구마·땅콩 수확 봉사로 지역 농가에 일손 지원
- **유기동물 지원 및 입양 돕기:** 설채현 수의사의 강연과 견사 청소·산책, 입양 홍보물 제작으로 유기동물 돌봄과 입양 지원

IMPACT

기브셔틀 참여 자원봉사자
2024~2026년

695명

기브셔틀 참여 자원봉사 시간

4,865시간

봉사활동 재실천 의향률

98%

STORY

Interview. 송모연 Photo. 정찬웅

적당히 느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래도록

설채현 | 수의사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현입니다. 진료와 방송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더 잘 사는 방법을 전하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나 진료실에서 많은 동물을 만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에 유기견 보호소 봉사에도 꾸준히 참여합니다. 지금 같이 지내는 제 반려견 '세상이'도 불법 번식장 구조 현장에서 만난 친구예요. 처음에는 도망도 못 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발해졌어요.

유기견 보호소가 대체로 접근성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기브셔틀이라는 기획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죠. 보호소까지 오가는 차편을 마련해 주고, 활동 전에 강연도 들을 수 있으니 진입장벽은 낮추고 봉사의 의미는 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역시 기브셔틀에서 만난 분들은 대체로 처음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셨어요. 강연을 토대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강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봉사하러 오실 때는 대부분 유기견이 더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봉사에 앞서 이 친구들을 이해하는 법부터 나누고 싶었죠. 동물의 행동과 상태를 잘 아는 제가 옆에서 알려드리며 함께하면, 더 좋은 경험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함께 청소하고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유기견들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손길을 기다리던 친구들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만족감으로 가득 차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봉사를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완벽하게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이 주는 행복을 느끼는 데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이가 저를 믿고 제 팔에 몸을 기대고 있을 때 저는 참 행복하거든요. 적당히, 느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진심을 나누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같이 잘 사는 모습입니다.

데이터센터 서버실에 들어가 보니 서버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서버를 일일이 확인하는 일을 로봇이 맡으면,
담당자분들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영성·강범진 | 한양대학교 ERICA 로봇공학과 학생

봉사를 처음부터 너무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완벽하게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이 주는 행복을 느끼는 데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채현 | 수의사







카카오 상생사업 모아보기

카카오	소상공인	프로젝트 단골	16p
	소상공인	카카오쇼핑 소상공인 성장 지원	20p
	소상공인	카카오메이커스 제가버치	26p
	창작자	브런치 공모전	54p
	스타트업	테크포임팩트	68p
	스타트업	카카오 AI 돛	70p
	디지털리터러시	미래 세대 AI 시민성 교육	78p
	디지털리터러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82p
	디지털리터러시	카카오테크 NGO AI 클래스	86p
	기술인재	카카오 AI 루키 캠프	96p
	기술인재	AI_TOP_100	100p
	기술인재	카카오테크 캠퍼스	102p
	환경	카카오메이커스 새가버치	114p
	환경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116p
	지역사회	안산 지역협력	124p
	지역사회	제주 임팩트 챌린지	126p
	사회적약자	모두를 위한 접근성	128p
	사회적약자	카카오같이가치	132p
카카오모빌리티	모빌리티	도로 위 히어로즈	36p
	모빌리티	모빌리티 종사자를 위한 상생	40p
	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34p
	모빌리티	AI 주니어랩	38p
	지역사회	기브셔틀	134p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서비스	22p
	소상공인	모두의 멘토링	24p
	스타트업	핀넥트(FIN:NECT)	64p
	디지털리터러시	제로라운드	84p
	기술인재	모두의 AI 코딩 LAB	98p
	환경	에코실험실·에코임팩트	112p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창작자	창작공간 지원	50p
	창작자	멜론 트랙제로	52p
	창작자	라이브클럽데이	52p
	창작자	예비창작자 교육 파이프라인	48p
	창작자	창작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56p
	환경	멜론 숲;트리밍	110p
	지역사회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수어문화제	130p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스타트업	카카오클라우드 로켓런처	66p
카카오페이	소상공인	오래오래 함께가게	18p
	디지털리터러시	사각사각 페이스쿨 주니어클래스	80p
	디지털리터러시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	82p
	디지털리터러시	사각사각 서포터즈	80p

카카오 수상 내역

시상 연월	그룹사	수상 및 선정 내역
2022		
10	카카오	제7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 대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11	카카오뱅크	나눔유공자포상식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12	링키지랩	'2022년 가족친화·여가친화 인증기업' 선정
2023		
1	카카오뱅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3	카카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사업' 선정
9	링키지랩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10	링키지랩	'2023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10	카카오임팩트	2023년 전통시장 활성 유공 표창 '대통령상' 수상
11	카카오게임즈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우수실천상' 수상
12	카카오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상생 우수기업' 수상
2024		
2	카카오	글로벌 재생 표준 인증 'GRS(Global Recycled Standard)' 획득
2	카카오	2023 앤어워드 '한국문화정보원장상', 'Grand Prix Winner 3개 부문' 수상
3	카카오	기후변화 대응·물경영 우수기업 시상식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5	카카오뱅크	대한민국 리딩금융 ESG 어워드 '리더상스마트금융대상' 수상
6	카카오	미국 타임지 &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선도기업' 선정
12	카카오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2024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지역사회 부문)
12	카카오페이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 '소비자안전상' 수상(시니어안전 부문)
12	링키지랩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2025		
4	링키지랩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수상
6	카카오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서 디지털접근성 향상, 정보문화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9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접근성 확대에 기여, '성남시장 표창' 수상
10	카카오	상생협력 공로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10	카카오뱅크	서민금융대상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11	카카오	제10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11	카카오페이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12	카카오페이	2025년 신용회복위원회 대외협력기관 공로자 시상식 '신용회복위원장 표창' 수상
12	카카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3년 연속 선정, 올해 최고 등급 'S' 획득
12	카카오	2025년 소비자 ESG혁신 대상 '상생협력상(사회공헌 부문)' 수상
2026		
2	카카오페이	금융감독원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우수직원 표창' 수상
4	카카오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6	카카오페이	시니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9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장애인 문화 접근성 확대와 인식 개선 기여 공로로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10	카카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역 상권 상생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10	카카오	시각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11	카카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함께한 파트너·기관

가천대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대학교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운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구로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아동돕기연합
국토교통부
굿네이버스
넥솔
농아사회정보원
다음세대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한교통학회
대한당뇨병학연구재단
대한적십자사
동락사회적협동조합
디랩(D.LAB)
라이브클럽데이협동조합
문화체육관광부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보건복지부
브라이언임팩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업통상부
서울수서경찰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울환경연합
성남시
세이브더칠드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소소한소통
소풍벤처스
손해보험협회
숲과나눔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신용회복위원회
아름다운재단
아이들과미래재단
연세대학교 의료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월드비전
임팩트비즈니스재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남대학교
점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대학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대학교
코나벤처파트너스
평화의숲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한국자원봉사문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해비타트
한라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함께일하는재단
환경재단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BTF푸른나무재단
WWF(세계자연기금)
(사)함께만드는세상
(주)엘리스그룹

카카오임팩트
kakaoimpact.org

카카오임팩트는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돕는 사람과 돕는 기술을 연결하고, 돕는 AI의 가능성을 확장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카카오창작재단
kakaocf.org

카카오창작재단은 문화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다양한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넥스트모빌리티상생재단
kmfoundation.or.kr

넥스트모빌리티상생재단은 기존 교통산업·모빌리티 종사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계속, 상생하겠습니다!

상생 담당자들의 한 마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카카오쇼핑(톡딜·선물하기) 판매자가 자사 플랫폼에 원활히 안착하고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같이 성장해요!**

- 최윤영 | 카카오

지난 5년간 창작자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수록 콘텐츠는 빛난다는 생각으로 상생을 이어왔습니다. **함께한 분들이 성장하고 감동하는 모습은 제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 전주혜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며 **사회에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정선라 | 카카오

꿈을 되찾았다는 루키의 말과 이 시간이 앞으로의 30년, 40년을 여는 시작점이 되리라는 부모님의 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더 많은 루키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박소이 | 카카오

소중한 연결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람과 자원을 이어드렸을 뿐인데, 오히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진짜로 쓰이는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건 파트너분들 덕분입니다.

- 김혜영 | 카카오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응원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작가와 출판사, 서점, 독자의 진심이 포개어질 때 비로소 작가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 오성진 | 카카오

더 많은 이들이 골목의 단골이 되고, 지역의 숨은 가치가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 김은화·이정현 | 카카오

트랙제로를 함께 만들어주신 전문위원님들과 아티스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선 음악이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 처음 닿는 순간**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 김지희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과 웹소설은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같은 감동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농인분들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문화 향유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창작하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민주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현직 교사분들과 교실을 함께 설계하며, **교사가 곧 변화의 시작점**임을 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과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최지원 | 카카오임팩트

더 나은 세상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관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오선영 | 카카오모빌리티

모든 사업은 “어떻게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도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 송수지 | 카카오페이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참여와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팬과 아티스트, 환경이 상생하는 뜻깊은 여정에 더 많은 분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국 3,000명의 시니어분들께 디지털·AI 교육을 전하고, 과기부와 함께한 전국 시니어 AI 골든벨 대회에도 도전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수업에서 배운 대로 나왔다”는 어르신의 한 마디가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 이수연 | 카카오임팩트

여러분 곁에 든든히 함께 하겠습니다

불법유통 대응 업무를 하며 **창작자와 독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피콕이 업계에서 믿음직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 권영국·한예슬·박수혁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창작자가 자신만의 색깔을 피워내는 모든 여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창작자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다채로운 형태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함께 가꾸어나가겠습니다.**

- 최영제 | 카카오창작재단

카카오뱅크의 발걸음이 따뜻한 온기로 이어지도록, **함께 잘 사는 내일을 위해 늘 고민할게요.**

- 조선영·김미래 | 카카오뱅크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누구나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문숙희 | 카카오임팩트

누구나 원하는 순간에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같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용자, 크루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혜일 | 카카오

카카오의 상생 5년 이야기

같이도생

발행일
2026년 11월 25일

발행인
정신아

발행처
㈜카카오

기획 편집
권대열, 육심나, 정연주, 강승원

디자인
리틀바이리틀

본 〈카카오의 상생 5년 이야기, 같이도생〉은 (주)카카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문의
카카오 지속가능경영
esg@kakaocorp.com

kakao